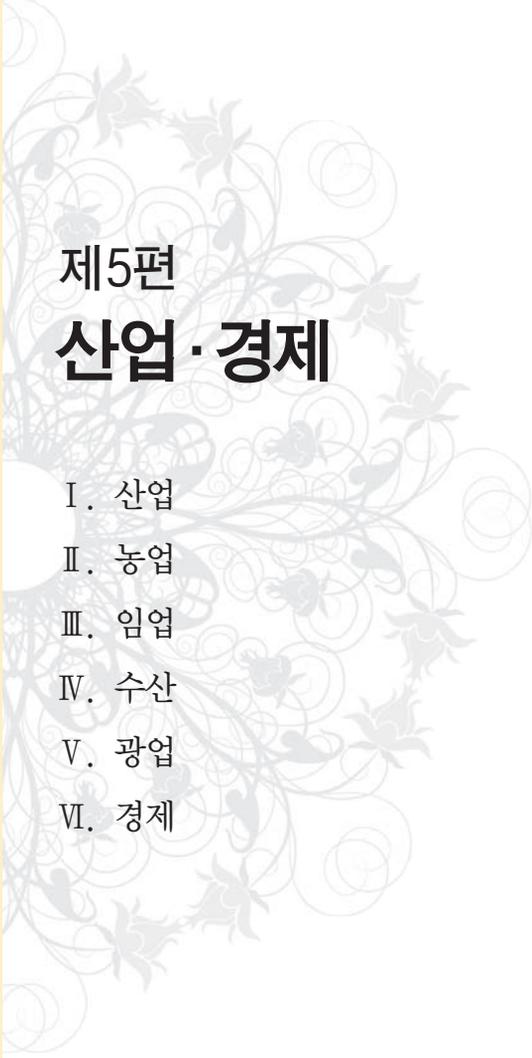


# 제 5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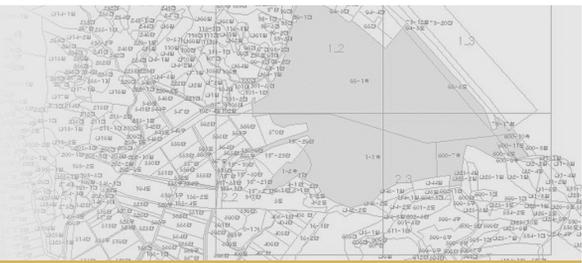
# 산업 경제





## 제5편 산업·경제

- I. 산업
- II. 농업
- III. 임업
- IV. 수산
- V. 광업
- VI. 경제



## I. 산업

### 1. 개황(概況)

양양군은 서쪽으로 태백산맥이 뻗어 설악산(1,708m), 응복산(1,360m), 오대산(1,565m) 등이 이어져 높고 험준하며, 동해안 쪽은 산지가 급경사를 이루며 해안에 약간의 평지가 있어 농경지로 이용된다. 평지는 해안을 따라 2~4km너비로 길게 발달되어 있다.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농업이 활발하였다. 총 경지면적 3,711ha 중 논이 2,462ha, 밭이 1,249ha로 논이 밭보다 약간 넓다.

2008년 현재 농가는 2,965가구, 농가인구 7,722명으로 농가인구는 2003년보다 6%가 줄어들었다. 식량작물은 미곡(米穀) 9,955t, 서류(薯類) 4,620t, 잡곡 893t 등을 생산하며 식량작물 중에서 미곡과 서류의 생산량이 많은 편이다. 참깨·들깨 등의 특용작물은 생산이 미미하며 사과·배·복숭아·감 등을 조금씩 재배한다.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가 5,658대 보급되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가축 사육은 한우 5,419마리, 토끼 3,334마리, 돼지 25,401마리, 닭 5,244마리이다. 임야면적은 2008년 말 기준 5만 2,451ha로서 전체 면적의 84%정도이다. 이중 국유림이 36,008ha, 사유림이 14,736ha, 공유림이 1,707ha를 차지한다.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17,802ha, 활엽수가 20,846ha, 혼효림이 12,712ha이다. 주요 임산물은 송이버섯, 밤·대추·버섯·산나물 등으로 연간 임산소득은 103억 원이다.

어가 수는 2005년 현재 300가구로, 전업 가구가 123가구 겸업 어가가 177가구이며, 어가인구는 968명으로 대부분이 겸업에 종사한다. 근해(近海)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한류성 어족과 난류성 어족이 풍부하다. 연안(沿岸)앞바다에서는 오징어·가자미·대구 등이 많이 잡히고 있으며, 대표적 한류성 어종이던 명태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차

참 개체(個體)수가 줄어 지금은 거의 어획되지 않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수산물 어획고는 2,159t이며 이 가운데 오징어가 345t으로 가장 많고 임연수어 225t, 방어 221t, 가자미 133t 등으로 어획되었다. 어선 수는 2008년 말 현재 총 321척 가운데 동력선이 314척, 무동력선이 7척이며, 5t미만의 소형어선이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남대천으로 회유하는 연어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이다. 손양면 송현리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에서는 매년 회귀하는 연어를 포획하여 수정란을 부화한 후 건강한 치어를 이듬해 봄 남대천에 방류하여 바다로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연어의 70%가 모친인 남대천으로 회귀해 연어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우리군은 연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 가치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대천하구 및 연어 소상로 주변일원에 200,000㎡의 면적을 연어특구로 지정해 연어 테마파크, 연어아트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연어와 관련한 산업을 집단지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약 462.4만t 자철광(磁鐵鑛)이 매장되어 있어서 양양철광산의 경우 한때 국내 제1의 철산지를 이루었으나 철광의 고갈과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폐광하였다. 이 철광석은 과거 거의가 포항종합제철소에 공급되었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15개 광구 중 현재 가행 광구는 비금속광물 3개 광구이며,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여 채굴하고 있는 규사는 2008년도에는 연간 24,168t으로 급락하였다.

생산단지로는 양양읍 포월리 261번지 일원에 11만 6,727㎡ 부지 위에 포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2002년 현재 32개 업체가 입주해 100%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추가로 10만 1,210㎡ 규모의 제2그린농공단지를 양양읍 포월리 산 49번지 일원에 2012년 준공목표를 조성 중에 있다. 이 농공단지에는 송이가공, 청정식품개발, 친환경벤처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 2. 고려의 토지제도

고려왕조의 집단과정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큼 토지제도는 매우 중요하였다. 고려는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 국유의 원칙을 표방하고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대장에 등록시킨 후 필요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하여 토지 자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만을 위양하되 대체로 일대(一代)에만 국한하였다. 따라서 관리 처분권은 국가에게만 있었다.

국초에 태조는 구세력을 포섭하기 위하여 귀부자(歸附者)에게 식읍(食邑) 사전(賜田) 등의 형식을 빌려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기반을 유지케 하였으며, 태조 23년(940년)에는 건국에 공로가 있는 신하와 군사에게 그 본래 소유지의 다소와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役分田)이란 것이 있었다. 그리고 외방의 향리에게 지급된 직전 또는 외역전(外役田)이라는 것이 있었고 군인도 군역의 대가로서 군인전을 받았다.

국가기관에 대하여도 그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공해전(公廩田)이 지급되어 공해전자(公廩田紫)라 하였다. 왕실 직할시인 내장전과 왕자 비빈의 궁원의 소속인 궁원전(宮院田)도 있었다. 그리고 국경이나 연해 요지의 방위를 위한 주둔 군마의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둔전이 설치되었으며 그 밖에 학교의 경비를 위한 학전, 왕의 친경(親耕)을 위한 직전(籍田), 외족(外族), 내투자(來投者)에 준 투화전(投化田), 사원(寺院)에 사여(賜與)·기진(寄進)되는 사원전(寺院田) 등이 있었다. 모든 토지는 수조권의 귀속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고려중기의 무신정권 이후 권문세가에 의한 장원이 확장되어 토지제도는 문란해지고 농민들은 전호(佃戶 : 소작인)로 전락되었다. 고려 말 이성계 등 신진세력은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신흥 세력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제를 개혁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였다.

### 3. 조선의 토지제도

#### 1) 전제(田制)

고려 때 균전법(均田法)을 만들어 일반 전지(田地)를 공전(公田)으로 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3년마다 일차식 증감을 조사하였다. 대신(大臣)이하 하급관리에게까지 녹전(祿田)이 있고, 그 외에 사원토지(寺院土地)가 있었다.

1392년 태조는 과전제도(科田制度)를 만들어 사패지(賜牌地), 궁토(宮土), 관전(官田), 위토(位土), 둔전(屯田), 역전(驛田), 사전(寺田), 군전(軍田) 등을 규정하였고, 일부 토지는 개인에게 분배하여 개인제(個人制)를 시행하였다. 개인제란 개주와 개호가 있어 개호가 개주의 일부 토지를 경작 수입하는 대상으로 개호(個戶)가 합력(合力)하여 개주의 토지를 경작 수확하여 주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관전, 역둔전, 학위전, 제위전 등의 공토와 입안 매매를 할 수 있는 사전(私田)이 있었다.

성종 21년 경술년(1490년)에 낙산사에 전(田), 답(畓), 노비(奴婢) 등을 하사하고, 와현(臥峴 : 당시 사현, 즉 적은, 방축리)이하 전부를 하사하니 이것이 곧 이 지방의 사패지(賜牌地)이다. 인조 6년 무진년(1628년)에 부사 조위한(趙緯韓)이 동명서원을 신설하고, 학전과 분반(盆般)을 두고 숙종 8년 임술년(1682년)에는 부사 최상익(崔商翼)이 향교를 이건하고, 현남면 동산리 소재, 답 세곳을 이속하였다. 이것이 곧 조선시대 학위전인 것이다. 지금도 그 문헌이 남아 있다. 숙종 23년 정축(1697년)에 이 고장 향교 유림 15인이 연명으로 현북면 면록치(綿鹿峙 : 현 면옥치)를 향교 입안지로 청원하여 부사 김연(金演)이 허락하였다. 이것이 군(郡)의 입안문서로서는 최고 문헌이다. 입안이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여 또는 불하제도와 같은 내용이다. 일반 주민이 황무지를 개간코자 할 때는 그 토지에 사표(四標)를 기록(현 측량과 같은 것)하고, 입안서(立案書)를 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개간한 후 결세(結稅)를 납부하고 사유로 만든다.

숙종 28년 임오(1702년) 향교에서 조곡 10석, 현금 5량으로 양양 정손리(현 기정리) 앞 뜰 득운평(得雲坪) 답(畓) 7두락(斗落)을 매수한 일이 있다. 이것이 매매문(賣買文)으로는 가장 정확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사실상 매매는 이루어졌다.

효종, 현종, 양조(兩朝) 이후 특기할 것은 각종 계(契)와 계답(契畓) 또는 계재산(契財産)이란 것이 있었다. 이 지방에 있었던 계를 분류하여 보면 대략 3종이 있었다. 실리(實利), 상조(相助), 사교(社交)로서 생산, 식리(殖利), 저축, 수리, 양림(養林) 등이 그 첫째이고, 둘째는 보존, 종족, 교육, 혼상(婚喪) 등이며, 셋째로 기구(耆舊), 보인(輔仁), 동경(同庚), 신앙 등이 있다. 누구나 출자하여 이식(利息)을 취하고, 재산을 적립하여 토지를 매입하며 사회, 경제의 양방면으로 큰 세력이 되는 동시 소유면적이 관둔전(官屯田) 등 공토(公土) 이상에 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고종 33년(건양 1년) 병신(1896년)에 농부(農部)훈령으로 각종 공토를 둔토로 편입시켰다. 고종 40년(광무 7년) 계묘(1902년)에는 지방에서도 양지(量地 : 측량)를 시행하고, 구문권을 토지아문(土地衙門)에 납입하고 신관권(新官券)을 받게 하였다. 1916년 토지 세부(稅賦)측량을 실시하고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동 12년 임야구분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임야의 소유권을 확립하였고 1923년 역둔토(驛屯土)를 10년 년부(年賦) 상환으로 민간에게 불하하였다.

## 2) 소작관계(小作關係)

토지 매매제도가 시행된 후 간평(看坪 : 즉 답험제(踏驗制))제와 타조반분제(打租半分制)가 실시되었다. 고종 연대에도 대개 동일하게 정도인납제(定租納納制)가 시행되었으며 1937년 정조인납제가 정조작미제(定租作米制)로 바뀐 후부터 소작료가 4~5할 인상되었다.

집필 : 이규환

## 참고문헌

-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2009
- 양양군, 「양주지」, 1990
- 양양군경제도시과, 농공단지현황2008, (내부자료)
- 양양군산림농지과, 산림현황2008, (내부자료)
- 양양군해양수산과, 어업현황2008, (내부자료)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현황2008, (내부자료)



## II. 농업

### 1. 개설(概說)

농업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땅을 이용하여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키우는 유기적 생산업이라고 정의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임업도 포함시켜 이른다. 농업은 우리들 삶에 생명유지를 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며, 생활에 필요한 많고 다양한 일용품들의 원료를 조달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그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농업생산이 자연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과거 보다 크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온도, 습도, 강수량 등의 자연조건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므로 농업은 1차 산업으로 분류된다.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2차, 3차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에도 연계되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부각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들어 산업의 복합화나 융합화라고 하는 것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어 농업이 농업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2차, 3차 산업과 연계시키며 1, 2, 3차를 합친 6차 산업화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양양군의 경우에는 산과 바다, 호수와 하천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 다양한 1차 산물들이 생산되므로, 이러한 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과 이들 산물과 가공품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과 접목시켜 6차 산업화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일부 산물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산업의 복합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도 큰 것이어서 앞으로 더 폭 넓게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양양군은 남북으로는 한반도 중심부에 있으며, 동서로는 동편에 자리 잡고 있다. 북위 38° 선이 군지역의 중앙부를 통과하고 있다. 군의 서편은 백두대간을 이루고 있는 태백산맥이 있어 군 전체 74%가 표고 100~1,360m를 나타내는 산악지형이며, 군의 동

편은 43.6km의 동해안을 끼고 있어 대부분 100m 이하의 표고로서 시가지와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면적은 628.8km<sup>2</sup>로서 서울(605.4km<sup>2</sup>)보다 조금 크며, 북쪽으로 이웃하고 있는 속초(105.3km<sup>2</sup>)의 5.7배에 이르고, 1개 읍 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의 세대는 점차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12,122세대 28,699명의 인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5,310명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은 연 평균기온 13°C, 연 강수량은 1,200~1,800mm를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작물생산에 적절하며, 최근에 들어 확대되고 있는 기후온난화의 영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양양군은 영동지역에 속하는 6개 시군 가운데 하나로서 북으로는 속초시와 접하고 있고, 남으로는 강릉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설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4개 시군은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인데 이들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춘천을 연결한 경춘고속도로의 연장으로 홍천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2015년경에 완공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환경들과는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2. 농업생산기반

### 1) 토지지목별 현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지목(地目)이라고 하고, 이는 지적법상의 토지의 분류로서 28개로 나누어져 있다.

양양군의 총면적 628.90km<sup>2</sup>의 지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1〉 토지지목별 현황

(단위 : 천㎡)

지 목	면 적	지 목	면 적	지 목	면 적	지 목	면 적
전	23,854	대 지	5,666	철도용지	866	공 원	33
답	29,724	공장용지	323	하 천	12,108	체육용지	14
과 수 원	423	학교용지	325	제 방	968	유 원 지	-
목장용지	837	주 차 장	98	구 거	6,393	종교용지	120
임 야	530,130	주유소용지	27	유 지	1,139	사 적 지	0.7
광 천 지	-	창고용지	132	양 어 장	26	묘 지	186
염 전	-	도 로	11,221	수도용지	11	잡 종 지	4,280

자료 :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2009

28개 지목 가운데 가장 큰 용도는 임야로서 84.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의 지형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수치이다. 지목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답이 4.7%로 전의 3.8%보다 크고, 목장용지가 0.13%로 과수원 0.07%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들의 합이 8.7%로서 임야까지 합치면 넓은 의미의 농업용지가 9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천지와 염전과 유원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면이 42.6%로 가장 크고, 다음이 현북면으로 26.1% 이어서 이들 두 개면이 군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2) 농가 및 농가인구

농가는 2,965호로 군 전체 가구수 12,227호의 24.2%를 나타냈다.

2004년 2,817호까지 감소하던 농가수가 2005년에는 3,404호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인구는 총 7,722명이며, 남자는 47.6%인 3,673명으로 여자의 52.4%인 4,049명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도 농가수와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에 9,395명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인 후 다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인구가 군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5%를 나타냈다.

농가호수로나 농가인구로나 군 전체의 구성비가 1/4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농가

호수 8.0%, 농가인구 7.3%)과 강원도(농가호수 13.0%, 농가인구 14.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구성비임을 알 수 있다.

〈표2-2〉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호, 명)

연 별	농 가	농 가 인 구		
		계	남 자	여 자
2002	2,935	8,646	4,267	4,379
2003	2,875	8,199	4,004	4,195
2004	2,871	8,152	3,914	4,238
2005	3,404	9,395	4,673	4,722
2006	3,188	8,248	3,891	4,357
2007	3,116	8,163	3,906	4,258
2008	2,965	7,722	3,673	4,049

자료 : 양양군, 위의 책

농가호당 인구는 2.6명으로 양양군 세대당 인구인 2.3명에 비해 조금 높았다.

세대당 인구는 1965년 5.7명에서 1975년 5.0명, 1985년 4.1명, 1995년 3.3명, 2005년에는 2.5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왔다. 이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바뀌는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수도 1950년대의 네 자녀에서 점차 두 자녀로 줄어들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한 자녀만 낳거나 아예 무자녀를 표방하는 가정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도시로 유출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 농가에는 고령화된 노부부만 남아 농사를 짓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3) 경지면적

#### (1) 경지면적

농업에 있어서 토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양양군은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바짝 붙어 서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 못한 편이다.

2008년 말 현재 논밭을 합친 면적이 3,711ha로서 이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4위를 나타내는 크기이다. 그 가운데 논이 66.3%를 차지하였고, 밭이 33.7%를 구성하고 있다. 양양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1983년의 5,332ha 규모이던 것이 24년 동안 1,608ha인 30.2% 나 감소하였다.

감소의 원인으로는 유희지,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경지면적

(단위: ha, a)

연 별	총 계	논	밭	가구당 경지 면적		
				계	논	밭
2002	3,854	2,638	1,216	131.3	89.9	41.4
2003	3,818	2,611	1,207	132.8	90.8	42.0
2004	3,802	2,570	1,232	132.4	89.5	42.9
2005	3,798	2,567	1,231	111.6	75.4	36.2
2006	3,768	2,573	1,195	118.2	80.7	37.5
2007	3,724	2,563	1,161	119.5	82.3	37.3
2008	3,711	2,462	1,249	125.2	83.0	42.1

자료 : 양양군, 위의 책

## (2) 가구당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은 125.2a로서 논이 68.9%, 밭이 3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강원도의 가구당 경지면적인 148a보다 19.3%나 작은 규모이다. 이는 양양군의 농업이 경영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계속 감소하던 규모가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 (3) 경지이용률

경지이용률이란 주어진 경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경지이용률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다. 1965년의 165.3%까지 높았던 것이 매년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03.0%로 떨어졌다. 강원도의 경우

1965년 141.3%에서 점차 떨어져 2008년에는 93.2%까지 낮아졌다. 100%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경지면적에서 쉬고 놓리는 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국에 비하여 강원도의 경지이용률은 늘 낮은 수치를 보여 왔다. 이것은 산악지역이 많고 위도가 높아 동절기가 빨리 오며 긴 탓으로 농지의 이용도가 영호남의 남부지역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양군도 산악지형과 위도가 높으므로 경지이용률이 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최근에 들어 온난화 등의 영향과 시설농업을 위한 자재의 개선이나 농법의 개발로 경지이용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농업의 재산성 악화 등의 영향에 밀려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표2-4〉 경지이용률(전국 : 강원) (단위 : ha, %)

연도	전국			강원		
	경지면적	이용면적	이용률	경지면적	이용면적	이용률
1965	2,256,396	3,587,719	165.3	158,261	203,533	141.3
2008	1,758,795	1,834,243	103.0	113,101	106,762	93.2

자료 : 동북지방통계청, 「최근 20년간 강원지역 경지 및 재배농작물의 변화」, kostat.go.kr

#### (4)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이른다. 1992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정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표2-5〉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 : 천㎡)

용도구역별	합계	농지										비 농 지
		계	답	경지 정리	전	경지 정리	과수원	경지 정리	기타 농지	경지 정리		
농업진흥지역	16,905	15,189	12,157	8,171	1,344	237	99	2	1,591	1,083	1,715	
- 진흥구역	16,632	14,932	11,946	8,003	1,338	235	99	2	1,550	1,064	1,700	
- 보호구역	273	257	211	168	6	2	0	0	41	19	15	

자료 : 양양군 산림농지과 내부자료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2008년 현재 16,904,464㎡로 군 면적의 2.7%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은 16,631,906㎡로 전체 농지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 9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1.6%로 나타났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논이 71.8%로 가장 많았으며, 밭은 8.0%, 과수원은 0.6%, 기타농지가 9.3% 그리고 비농지가 10.2%로 나타났다.

한편 진흥구역 내 논·밭의 경지정리율은 67.0%이었으며, 밭의 경지정리율은 17.6%로 아직도 매우 낮은 상태를 보였다.

## (5) 수리답

경지 가운데 논·밭의 경우 작물 생산과정에서 적절한 때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끌어 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밭의 속성상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필요한 농업용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리안전답은 농업경영자가 절대적으로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양양군의 수리안전답은 2,563.0ha로서 수리안전답률이 77.3%로 나타났다.

〈표2-6〉 수리답 현황

(단위 : ha, %)

수리답	수리안전답	기타수리답	수리안전답률
3,145.9	2,563.0	582.9	77.3

자료 : 양양군, 앞의 책

#### 4) 농업수리시설

농업수리시설로는 설악저수지, 연창양수장, 손양양수장 세 곳이 있다. 각 시설의 제원과 수리안전담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각 시설들은 한발빈도 10년과 홍수빈도 20-200년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서쪽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 10여 개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물치천과 남대천 그리고 화상천이 조금 큰 하천이라고 할 수 있다.

북쪽을 흐르고 있는 물치천은 설악산의 대청봉(1,708m)과 화채봉(1,077m) 사이골, 둔전골에서 모여진 물을 둔전리의 설악저수지에 가두어졌다가 물치리를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는 하천이다.

〈표2-7〉 농업수리시설 현황			
제 원 \ 시설명	설악 저수지	연창 양수장	손양 양수장
수 계 명	물 치 천	남 대 천	남 대 천
위 치	강현면 둔전리	양양읍 연창리	손양면 송현리
착공일자	1976. 1. 1.	1998. 3.23.	1999. 1. 1.
준공일자	1980.12.30.	1999.12.30.	2002.12.20.
총저수량	1,438천m <sup>3</sup>		
제당높이/제방표고	41.1m(포고:215EL.m)	10.5EL.m	5.8EL.m
수리안전담 면적	225.6ha	130ha	79ha
취수능력/최대양수량	1.84m <sup>3</sup> /sec	0.56m <sup>3</sup> /sec	0.4m <sup>3</sup> /sec

자료 :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 내부자료에서 정리

남대천은 오대산 두로봉(1,422m)과 응복산(1,360m)에서 발원한 물이 합류하여 범수치리와 어성전을 거쳐 양지말에서 북으로 흘러 용천리와 월리 사이에서 오색령(920m)과 약수산(1,306m)에서 발원한 물과 합류하여 양양읍을 거쳐 동해로 빠지는 그 하천길이가 37.1km에 이르는 매우 긴 하천이다. 남쪽을 흐르는 화상천은 삼형제봉(618m)에서 발원하여 입암리를 거쳐 동해로 들고 있는 하천이다.

양양군은 높은 산들을 경계에 두고 있어 골이 깊은 지역이 많아 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5) 농업용 기구·기계

농업생산에 있어 토지와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요소가 중요하지만 현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낫보다는 콤바인이, 삽보다는 포크레이이, 손보다는 이앙기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표2-8〉 농업용 기계 보유

(단위 : 대)

연별	총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콤바인	농산물건조기
2007	5,417	2,133	582	1,263	386	192	360	180
2008	5,658	2,044	627	1,237	416	210	377	206

자료 : 양양군, 앞의 책에서 정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은 농기계 보급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경운기 수준에 머물던 것이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건조기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농업용 관정과 양수기도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정은 1,102개소가 있으며, 양수기는 454대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농기계의 대형화, 다양화와 함께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6) 비료 공급 실적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농기계의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비료생산과 공급의 확대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원래 땅의 힘인 지력은 그 토양이 지니고 있는 성분에 의해 결정되지만, 농작물 생장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을 포함한 유기질 비료가 퇴비의 형태로 지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학비료가 대량생산되게 되었고 공급확대와 종류의 다양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화학비료의 사용증대로 영농비가 상승하는 문제점과 병충해 발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약사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표2-9〉 비료 공급

(단위 : M/T)

연별	성분별				종류별						
	계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계	유안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	복합비료	용과린
2007	994	558	202	234	2,239	32	480	6	12	1,706	3
2008	1,124	589	275	260	2,695	29	564	1	11	2,088	2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성분별로 보면 총 1,124M/T를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질소질 비료가 가장 많아 52.4%를 차지하였고, 가리질이 23.1%, 인산질이 24.5%를 나타냈다.

종류별로 보면 총 2,695M/T를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복합비료가 77.5%로 3/4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요소가 20.9%, 나머지 종류들은 적은 양들을 나타냈다.

### 3. 농업생산

#### 1) 식량작물

식량작물의 총면적은 2,918ha이며, 이 가운데 주식작물인 미곡이 77.2%의 2,254ha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두류가 8.4%의 245ha, 잡곡이 7.2%의 210ha, 서류가 6.2%의 180ha 순이었고, 맥류가 1.0%인 29ha로서 가장 낮았다.

한편 식량작물의 총생산량은 15,908.8M/T이며, 이 가운데 역시 주식작물인 미곡이 62.6%의 9,955M/T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류가 29.0%의 4,620M/T를 나타내 강원도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잡곡이 5.6%의 892.4M/T, 두류가 2.4%의 388.2M/T 순이었고, 맥류가 0.3%의 53.2M/T로서 가장 작았다.

식량작물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순으로 살펴보았다.

## (1) 미곡

## 가. 생산

우리 농업의 상징이며, 민족의 주식인 쌀은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소비량과 전체 소비량이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천혜의 기후 조건과 맑고 깨끗한 남대천 물이 흐르는 양양에서 재배한 쌀은 색택이 투명하고 충실도가 있어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다.

재배면적은 2,254ha이며, 재배 농가수는 3,000 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량은 9,955M/T 이다. 주재배 품종은 오대, 운광, 오대1호, 호반, 상주찰, 조생흑찰 등이고, 재배되는 벼는 모두 논벼이며, 밭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표2-10〉 미곡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논 벼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2,218.0	10,184.0	2,218.0	10,184.0
2006	2,214.0	9,447.0	2,214.0	9,477.0
2007	2,265.0	9,785.0	2,265.0	9,785.0
2008	2,254.0	9,955.0	2,254.0	9,955.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나.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과 보관

전국적으로 볼 때, 쌀의 생산량 즉 공급량이 소비량 보다 많아, 매년 공급초과로 수확기의 미곡시장에서의 쌀값은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농가의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는 생산농가의 경제안정화를 위하여 추곡을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미곡은 1,191M/T이었으며, 이 가운데 1등급이 79.7%의 949M/T로 가장 많았고, 특등급이 17.9%의 213M/T, 2등급이 2.4%의 29M/T 그리고 3등급은 없었다.

〈표2-11〉 공공비축 미곡 매입 (단위 : 1,000kg)

연 별	실 적	등 급 별				종 류 별 일반매입
		특 등	1 등	2 등	3 등	
2005	1,773	56	1,536	179	2	-
2006	1,572	190	1,231	150	1	1,572
2007	1,365	81	1,052	230	2	1,365
2008	1,191	213	949	29	-	-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이렇게 매입한 미곡은 정부관리양곡으로 보관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대한통운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관리양곡을 정미하거나 제분하는 가공공장은 없는 실정이다.

〈표2-12〉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단위 : 개소, m<sup>2</sup>, M/T)

연 별	대 한 통 운 창 고		
	동 수	면 적	보 관 능 력
2005	1	1,150	1,825
2006	1	1,150	1,825
2007	1	1,152	1,825
2008	-	-	-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2) 맥류

보리는 쌀과 함께 주식을 이루는 곡물이다. 과거의 ‘보릿고개’ 라는 표현이 우리들의 식량사정이나 삶의 모습을 함축하여 담고 있듯이, 추수기에 거둔 수확량으로는 늦가을과 겨울을 지나 봄을 넘기기도 쉽지 않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곡식이다.

〈표2-13〉 맥류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겉 보 리		쌀 보 리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2005	18.0	43.7	15.0	6.7	3.0	7.0
2006	22.0	54.7	19.0	47.6	3.0	7.1
2007	22.0	53.2	20.0	48.0	2.0	5.2
2008	29.0	72.9	27.0	67.7	2.0	5.2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늘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쌀의 다수확품종이 개발되면서 주곡의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었고, 보리는 외면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리는 다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농가에서의 생산면적과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양양군의 보리생산은 겉보리가 면적에서나 생산량에서 92.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를 쌀보리가 채우고 있다.

대량의 수입산 밀가루가 국내시장을 점차 장악하면서 국내에서의 자급도가 거의 0% 가까이까지 떨어졌던 밀도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국산 밀 살리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으나 양양군에서의 생산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 (3) 잡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의 잡곡도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이를 보충하던 역할을 해 낸 중요한 곡물자원이다.

〈표2-14〉 잡곡

(단위 : ha, M/T)

연별	합계		조		수수		옥수수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187.9	1,153.3	11.2	13.5	13.0	13.7	148.0	1,100.0	15.7	16.1
2006	177.0	680.4	12.0	14.0	14.0	15.5	135.0	635.0	16.0	16.0
2007	200.0	818.1	10.0	12.0	10.0	12.0	168.0	782.9	12.0	11.2
2008	210.0	892.4	6.5	7.2	6.0	6.6	180.0	864.0	17.5	14.6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음력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던 오곡밥은 찰쌀에 기장·찰수수·검정콩·붉은 팥 등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이다. 농업으로 삶을 영위하던 시대에 올 해에도 모든 곡식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건강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선식(禪食)은 여러 가지 곡류를 날 것으로 빵거나 갈아서 섞어 놓은 가루음식이다.

양양군의 잡곡생산은 면적이 210ha, 생산량이 892.4M/T이다. 이 가운데 옥수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면적의 85.7%, 생산량의 96.8%에 이른다. 다음은 조, 수수, 메밀 등이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잡곡은 역시 옥수수다. 강원도 옥수수는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다. 옛 시절에는 부족한 주식량을 대신하던 곡물이기도 하다. 4°C 정도의 냉장저장이나 삶은 후 진공포장 상태로 냉동하여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연중 소비되고 있는 기호식품이기도 하다.

옥수수는 단백질, 비타민, 섬유소 등이 풍부하여 노화예방, 정장작용, 체력증강, 신장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180ha 면적에 1,200여 농가가 864M/T를 생산하였다. 주 재배품종으로는 미백, 미백2호, 미흑찰, 일미찰 등이 있다.

**(4) 두류**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우수한 식품이다. 우리네 식탁에서 된장, 청국장, 두부, 간장 등은 콩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이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류는 콩의 재배 면적의 89.8%인 220ha, 생산량의 92.7%인 360M/T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팥과 녹두 등도 조금씩 생산되고 있다. 콩의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콩이 시장에 큰 점유율을 나타내 식탁에 올라온 식품이 늘 국산콩이 원료인지가 의심을 받는 상태까지 되었다.

〈표2-15〉 두류 (단위 : ha, M/T)

연별	합 계		콩		팥		녹 두		기 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284.2	471.7	241.0	422.0	20.1	24.5	1.8	1.8	21.3	23.4
2006	276.0	474.9	243.0	437.0	20.0	24.0	2.0	2.0	11.0	11.0
2007	270.0	463.0	227.0	408.0	20.0	26.1	-	-	23.0	28.3
2008	245.0	388.2	220.0	360.0	15.0	17.4	-	-	10.0	10.8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5) 서류

서류는 감자와 고구마로 구성되며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작물이다.

감자는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 및 건강을 돕는 양질의 단백질과 질소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다. 감자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식품이기도 하다. 감자는 냉장하지 않아도 비교적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맛이 좋으며, 만복감을 주기 때문에 주식 대용으로 먹기도 하며 다양한 요리법으로 각광 받는 농산물이다.

과거에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화전으로 일군 밭에 감자를 재배하여 주식용으로 삼았던 시절도 있었다. 오늘날에도 전국에 씨감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자 주산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감자는 160ha에서 4,288M/T를 생산해 서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구마는 색깔이 붉고 선명하며 비타민, 펙틴을 함유하여 지방간, 대장암, 비만 등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성인들과 아이들의 영양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식품이다. 고구마는 20ha에서 332M/T를 생산하여 서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표2-16〉 서류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고 구 마		감 자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189.0	4,820.0	12.0	168.0	177.0	4,652.0
2006	173.0	4,120.0	17.0	297.5	156.0	3,822.0
2007	177.0	4,581.0	17.0	302.6	160.0	4,278.4
2008	180.0	4,620.0	20.0	332.0	160.0	4,288.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2) 채소

채소는 주식과 함께 들게 되는 반찬을 이르는 부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그리고 조미채소류인데 면적으로는 조미채소류가 65.3%인 128ha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엽채류가 14.6%, 과

채류가 12.5%이고, 근채류가 가장 적은 7.6%를 차지하였다.

한편 생산량으로는 엽채류가 36.1%인 1,138.7M/T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과채류가 24.8%, 조미채소류가 23.1%이고, 근채류가 가장 작아 16.1%를 나타내었다.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순서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 (1) 과채류

과채류란 채소 가운데 그 작물의 열매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른다. 과채류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재배되는 주종은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과 토마토가 있다. 총 재배면적은 24.5ha, 총생산량은 782.9M/T로 면적으로는 채소 가운데 3위이며, 생산량으로는 2위를 나타내고 있다.

과채류 가운데 면적으로는 호박 46.1%, 오이 35.1%, 토마토 9.8%, 딸기와 참외가 각각 4.5% 순이었으며, 생산량으로는 호박 42.5%, 오이 41.2%, 토마토 9.8%, 참외 2.6%, 딸기 1.2% 순으로 나타났다.

오이는 동해안 근처에서 재배해 아삭한 맛과 향이 살아 있고 신선하여 토마토와 같이 6~9월 사이에 수확체험을 할 수 있으며 현지구입도 가능하다.

오이는 수분은 많아 이노제 역할을 하는데다 칼로리는 낮고 알파에라테린 성분이 많아 신선한 맛이 나며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편이다. 양양군에서는 39여 농가가 전문적인 원예농업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주 재배 품종은 조은백다다기이다.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A가 풍부하고, 항암, 항노화, 비만 예방에 탁월하고 기름기 있는 식품과 곁들여 먹으면 위의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4~5배 높고, 유기산, 비타민C, 미네랄이 풍부하며, 과실 크기가 작아 생식이나 샐러드용으로 인기가 높은 작물이다.

2006년도에 손양면 학포리는 양양관광과채류 마을로 지정되어 수확체험관광을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는 숙성 후 수확하기 때문에 광택이 좋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당도가 높아 인기가 좋은 상품이다.

재배농가는 32개 농가이며 시설재배를 주재배품종은 텐텐과 섬머킹이다.

〈표2-17〉 채소류(과채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별	과 채 류		수 박		참 외		딸 기		오 이		호 박		토 마 토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27.1	829.1	0.6	13.6	0.9	16.5	5.0	38.8	8.3	381.1	10.6	306.5	1.7	72.6
2006	29.4	844.9	0.7	17.8	1.0	19.6	4.8	38.4	9.0	336.9	10.7	317.5	2.5	88.3
2007	27.9	796.0	0.7	15.6	0.8	15.9	4.3	37.7	9.4	331.7	10.4	312.4	2.3	82.7
2008	24.5	782.9	-	-	1.1	20.6	1.1	9.6	8.6	322.8	11.3	332.8	2.4	97.1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2) 엽채류

엽채류란 채소 가운데 그 작물의 잎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른다. 엽채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재배되는 엽채류로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등이 있다. 총재배면적은 28.7ha, 총생산량은 1,138.7M/T로 면적으로는 채소 가운데 2위이며, 생산량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엽채류 가운데 면적으로는 배추가 가장 많아 55.7%, 다음은 상추가 21.6%, 시금치 17.4%, 양배추 5.2% 순이었으며, 생산량으로는 배추가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추 14.0%, 시금치 7.9%, 양배추 5.8% 순으로 나타났다.

〈표2-18〉 채소류(엽채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별	엽 채 류		배 추		양 배 추		시 금 치		상 추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30.2	1,157.9	15.5	814.4	1.5	61.4	5.6	94.9	7.6	186.3
2006	31.6	1,163.0	15.3	798.2	1.6	64.2	5.8	98.9	6.4	138.2
2007	28.7	1,083.4	15.1	794.6	1.5	56.0	5.5	94.5	6.6	138.3
2008	28.7	1,138.7	16.0	822.5	1.5	66.5	5.0	90.5	6.2	159.2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3) 근채류

근채류란 채소 가운데 그 작물의 뿌리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른다. 근채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재배되는 주요작물은 무와 당근이다. 총재배면적은 14.8ha, 총생산

량은 507.2M/T이고 이 가운데 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면적의 92.6%, 생산량의 93.6%를 나타내었다.

〈표2-19〉 채소류(근채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 별	근 채 류		무		당 근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13.5	363.0	12.4	329.9	1.1	33.1
2006	13.5	379.5	12.4	345.5	1.1	34.1
2007	13.7	378.4	12.4	344.1	1.3	34.3
2008	14.8	507.2	13.7	474.7	1.1	32.5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4) 조미채소류

조미채소류는 채소 가운데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조미용 채소를 이르며, 고추, 파, 마늘, 양파, 생강 등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추, 파, 마늘이 재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조미채소류의 총재배면적은 128ha, 총생산량은 728.7M/T이며, 이 가운데 면적으로는 고추가 76.6%를 차지하여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파 15.1%, 마늘 8.4% 순이었고, 생산량으로는 파가 6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추 24.7%, 마늘 11.0% 순이었다.

〈표2-20〉 채소류(조미채소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 별	조미채소류		고추		파		마늘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128.3	724.7	96.4	159.8	22.6	496.3	9.3	68.6
2006	128.5	730.0	95.6	156.7	23.3	501.6	9.6	71.9
2007	127.1	722.2	95.2	154.8	22.4	505.2	9.5	62.2
2008	128.0	728.7	98.0	180.2	19.3	468.6	10.7	79.9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고추는 1,600여 농가가 재배하며, 주재배품종은 부촌과 대촌이며, 일명 아삭이고추, 오이고추로 불리는 길상은 유기농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양양고추는 진한 빛깔의 선홍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매운맛이 적당하고 당도가 높은

편이다. 과피가 두껍고 고추씨가 적어 고춧가루로 뺐았을 때 색깔이 좋아 김치, 매운탕, 고추장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고추에는 비타민A, C와 캡사이신이 풍부하여 식욕을 돋우면서 체액분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기도 하여,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식품이기도 하다.

### 3) 특용작물

전국적으로 특용작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배되는 주종으로는 참깨와 들깨 그리고 땅콩이 있다. 조금씩 재배되던 땅콩도 수입산이 시장을 차지하면서 그나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특용작물은 들깨가 대부분으로 면적 89.4ha에서 생산량 63.5M/T를 나타내고 있다. 참깨는 아주 적어 2.0ha의 1.2M/T이었다.

〈표2-21〉 특용작물 생산량

(단위: ha, M/T)

연 별	참 깨		들 깨		땅 콩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3.8	2.1	82.0	47.4	0.1	0.2
2006	2.1	1.2	81.4	56.8	-	-
2007	2.4	1.5	78.7	53.3	-	-
2008	2.0	1.2	89.4	63.5	-	-

자료: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4) 과수

과실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이 있다. 총재배면적은 315.1ha에 총생산량은 2,275.0M/T이다. 이 가운데 면적으로는 감이 52.4%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배가 19.0%, 복숭아 16.8%로 세 가지 품목이 8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1.9%, 포도는 0.7%에 그치고 있어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량에서는 배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복숭아 30.5%, 감 14.9%로 세 가지 품목이 91.1%를 차지하여 3대 과일임을 드러내었다. 사과는 3.0%, 포도는 0.6%에 그쳐 아주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과의 경우 위도상 대구권 주변에서 생

산되던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북방한계가 점차 올라와 양양권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2-22〉 과실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사 과		배		복 송 아		포 도		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192.9	1,291.8	8.0	68.0	75.0	639.9	48.0	381.0	1.0	7.7	61.0	195.2
2006	200.4	1,389.2	9.2	110.4	79.8	664.1	48.0	401.1	1.9	16.8	61.5	196.8
2007	189.0	1,904.1	7.0	79.0	67.0	849.0	48.0	644.1	2.0	16.8	65.0	315.2
2008	315.1	2,275.0	6.0	69.0	60.0	1,040.0	53.0	693.0	2.1	13.0	165.0	340.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예부터 과일하면 ‘낙산배’를 떠올리는데, 이는 조선 중엽에 재래종 황실리 품종이 낙산사 주변에서 재배되면서 주요 과수로 지정되어 나라에 진상될 정도로 맛이 좋아 ‘낙산배’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설악의 신선한 계곡, 남대천의 맑은 물로 재배된 ‘낙산배’는 색깔이 곱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고, 열이 있는 아이들에게 배즙을 내어 죽을 쑤어 먹이면 해열이 되기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배는 음식 조리시에 많이 사용되는데 육류 조리시 배즙이나 배를 채 썰어 양념을 하게 되면 육질이 연해지고 고기의 고유의 맛을 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9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주재배품종으로는 원황, 화산, 신고 등이 있다.

또한 복숭아는 알맞은 토양 산도와 충분한 일조량의 유리한 조건으로 재배하여 과육이 연하고 향기가 좋으며 당도가 높다. 복숭아는 비타민 A, 펙틴, 유기산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고 식욕을 돋우어주며 껍질은 해독작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종자는 한방에서 도인(桃仁)이라고 하여 약재로도 사용된다. 특히 ‘곰마을’로 불리는 용천리 복숭아 마을이 있는데 해마다 복사꽃 축제가 열려 꽃향기 가득한 소박한 마을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 98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주재배품종은 월봉, 일천, 선골드, 유명, 홍이도, 미백 등이다.

또한 감은 비타민 A, B가 풍부하고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고혈압, 중풍, 설사, 위장염 등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은 탐스러운 색깔과 감칠맛 나는 과일로

껍질을 깎아 말려서 꽃감으로 만들어 겨울을 나면서 즐기는 간식거리이기도 하다. 575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주재배품종은 대봉시, 고동시 등이다.

## 5) 화훼

지역적 특성으로 북의 찬 기운과 남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는 곳이며, 산악적 요소와 해양성 요소가 만나는 곳이어서 다양한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훼류가 아직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는 환경이다. 총 재배면적이 5.8ha, 생산량은 1,566천본이다. 면적으로는 절화류가 77.6%, 분화류, 초화류, 화목류 순이었으며, 생산량으로는 절화류가 8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초화류, 분화류, 화목류 순이었다.

고아한 자태와 품격 높은 향기로 사랑 받는 백합은 발효액비, 목초액 등의 사용으로 환경친화적 재배를 하고 있다. 또한 품종별 단지화, 공동출하, 연구모임회 결성,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억제재배와 겨울철 온난화 해양성 기후로 축성재배를 활용하고 있다. 13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주재배품종은 어라연, 오거스타, 시베리아, 소르본느, 옐로윈, 메두사 등이다.

타 지방에서 생산되는 국화에 비해 화색이 선명하고 절화 수명이 긴 아름다운 꽃 국화는 해양성 기후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겨울은 온난하고 여름은 서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농가별 품종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수출전략 작목화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병충해 및 철저한 차광관리로 고품질 국화생산을 하고 있으며, 자연농법, 유기농법을 절충한 토양관리로 연작에 따른 재해도 방지하고 있다. 8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주 재배품종으로는 신마, 아르거스, 포드, 백선 등이다.

〈표2-23〉 화훼류 재배현황

(단위 : ha, 천본)

연별	합 계		절 화 류		분 화 류		초 화 류		화 목 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6	10.1	2,918.0	7.5	2,852.0	0.8	45.0	0.1	10.0	1.7	11.0
2007	13.1	2,204.0	5.2	1,874.0	0.5	15.0	7.1	240.0	0.3	75.0
2008	5.8	1,566.0	4.5	1,315.0	0.5	12.0	0.1	20.0	0.1	10.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산업화와 도시화가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나아지긴 했지만 대가로 잃게 된 것들도 있는데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오염된 것이 그 하나다.

우리들 삶의 환경의 전반적인 악화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대응책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수요 급증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는 사실과 다른 농산물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유통되기도 하면서 인증제도가 마련되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17건, 132개 농가, 58ha, 인증량은 219M/T이다. 이 가운데 무농약농산물이 가장 많아 12건, 103개 농가, 45ha, 154M/T이었으며, 그 다음을 유기 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청정환경을 지니고 있어 이들 관련 농산물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표2-24〉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2005	5	31	14	66	-	-	-	-	1	17	15	53	4	14	14	66	-	-	-	-
2006	7	35	30	93	-	-	-	-	2	20	15	51	5	15	15	42	-	-	-	-
2007	10	59	35	136	2	20	14	26	-	-	-	-	7	32	19	87	1	7	2	23
2008	17	132	58	219	2	8	9	25	-	-	-	-	12	103	45	154	3	21	4	4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7) 축산

대표적인 축산물로는 소와 돼지가 있다. 이는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조금 더 확대시키면 닭과 개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 (1) 소

사육되는 소에는 한육우와 젃소가 있다. 대부분은 한육우로서 2008년에 사육가구 634호에, 사육 마리수가 5,419마리로 나와 있다. 한편 젃소는 점차 감소하여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 한우는 푸른 산, 맑은 물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고품질 한우 개량단지의 명성을 얻고 있으며, 차별화 된 사양관리, 특히 사료 개발로 특색 있는 고급육 생산을 하고 있다.

〈표2-25〉 가축(소) 사육

(단위 : 마리)

연 별	한 육 우		젃 소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2005	633	4,148	6	423
2006	718	4,280	3	127
2007	711	4,782	-	-
2008	634	5,419	-	-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영동지방의 한우 브랜드 ‘한우령’은 7개 시·군과 4개 축협이 연합하여 만든 한우 광역 브랜드로서 영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한우’와 영동지역을 상징하는 백두대간의 중축이 되는 ‘고개’를 결합한 합성어로 우리나라 국토의 젃줄인 백두대간의 기백을 받으며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맛있는 한우를 뜻한다.

### (2) 돼지 및 기타

소 다음은 돼지를 포함하여 닭과 개 등 여러 가지의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다. 양양군에서는 사육농가로는 개가 가장 많아 1,202호로 소를 키우는 농가보다도 많다. 사육 마리수로는 돼지가 월등히 많아 25,401마리나 된다. 닭도 적지 않은 편이었으나 조류독감 파동이 있을 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조금은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산양과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좀 있고,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밀원이

풍부하여 꿀벌 사육농가도 158호에 이른다.

〈표2-26〉 가축(돼지등 기타) 사육 (단위 : 마리)

연 별	돼 지		사 슴		개		산 양		닭		오 리		꿀 벌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2005	30	28,066	22	277	1,286	3,945	40	277	433	7,405	54	1,238	133	4,737
2006	21	25,671	16	276	1,451	3,804	48	472	463	6,421	48	448	128	7,212
2007	21	29,895	15	245	1,341	3,429	40	466	416	5,839	32	484	110	7,704
2008	21	25,401	13	210	1,202	3,020	46	540	391	5,244	43	585	158	6,849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표2-27〉 축산물위생 관계업소 (단위 : 개소)

연 별	합 계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2005	58	-	1	51	5	1
2006	51	1	1	44	5	-
2007	55	2	1	47	5	1
2008	55	2	-	33	5	1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돼지고기는 인간이 섭취하는 육류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대표적인 육류로서 도축한지 3~4일 지난 것이 가장 맛이 있다고 한다. 고기의 빛깔은 쇠고기보다 연한 분홍색이고, 지방이 희고 견고하며 방향이 있는 것이 우량품이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1, 함량이 월등히 높고, 뇌졸중 예방 및 감염증에 강한 체질을 만들어준다 하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갈비와 경합되지 않는 등심, 안심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사육농가는 21호이며 주사육품종은 랜드레이스이다.

축산물위생 관계업소는 총 55개이며, 이 가운데 축산물 판매업이 대부분으로 식육판매업이 33개, 축산물수입판매업이 1개, 우유류 판매업이 5개로 모두 53개이며, 축산물 가공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은 2개가 있을 뿐이다. 한편 양양군에 수의사는 1명뿐이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 (1) 작목입식도

산간지는 토종꿀과 장뇌로서 품목수가 적다. 중산간지는 국화, 백합, 복숭아, 감, 한우, 참취, 고사리, 음나무 등이 포함되어 많은 품목이 입식되어 있다. 해안평야지는 노지채소, 찰옥수수, 배, 시설채소, 양돈, 미나리, 고추, 감자로서 1년생 작물들이 많이 입식되어 있다.

### (2) 작부체계도

산간지 보다는 중산간지와 해안평야지가 더 다양한 작부유형을 갖추고 있다.

## 9) 품목별 연구모임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교육은 전략 주력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18개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사업과 연계한 주요 영농시기별로 연중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경영능력 증진과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표2-28〉 품목별 연구모임회 현황

연구모임명	회원수	교육횟수	참여인원	설립년도
낙산배	51	3	120	'97. 4.10.
복숭아	40	1	40	'00. 6.30.
감	40	1	28	'05. 2.22.
화훼	20	1	20	'99. 1.15.
시설채소	25	1	22	'05. 2.15.
송이	23	-	-	'02. 3. 8.
표고버섯	27	-	-	'99. 2.25.
쌀전업농	58	1	58	'00. 1. 1.
친환경농업	29	2	46	'04.11.15.
사이버	20	-	-	'09. 2.12.
전통음식	20	10	180	'99. 3.10.

연구모임명	회원수	교육횟수	참여인원	설립년도
전통규방	25	32	800	'09. 5.27.
천연염색	20	33	600	'00. 3. 7.
꽃 누 림	20	33	600	'00. 3. 7.
분 재	26	-	-	'99.10.20.
농촌관광	32	-	-	'97.10.26.
한 우	32	-	-	'01. 3.10.
양 봉	42	-	-	'94. 3.15.

## 4. 농업 관련 조직

농업 관련 조직은 행정조직과 지원기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1) 행정조직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과거에는 군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통합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모여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아래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가 있고, 농업정책과 안에는 농업정책, 농촌개발, 생활자원, 농업마케팅, 축산위생계가 있으며, 기술지원과 안에는 작물환경, 인력육성, 원예경영, 특화작목, 기술연구계가 있다. 총 15명이 배치되어 있다.

### 2) 지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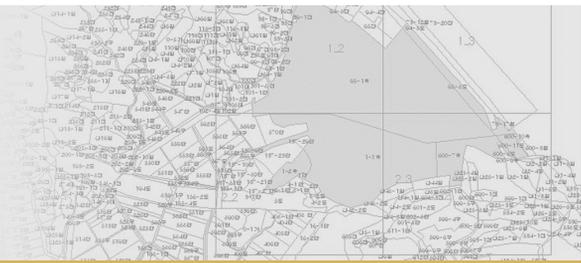
농업관련 지원 조직으로는 농업협동조합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있다

농협조직은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시설을 담당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강원농수산포럼, 「2009년도 강원농정산림 역점시책」, 2009. 2.
- 동북지방통계청, 「최근 20년간 강원지역 경지 및 재배농작물의 변화」, 2009.
- 송미령 외,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2008.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양양군의 농업현황, 2009(내부자료).
- 양양군, 『2009년 양양군 통계연보』, 2009.
- 양양군 산림과, 농업진흥지역 현황, 2009(내부자료)
-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 농업수리시설현황, 2009(내부자료).
- 한국은행 강원본부, 『2008년도 강원지역 경제연보』, 2009.
-



## Ⅲ. 임업

### 1. 총설

임업은 임지를 조성·유지하고 임목을 무육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산림경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

산림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용은 지대하며 인류문명발달에 따라 그 이용 형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고대 봉건군주시대에는 산림의 주관이 일부 왕족이나 귀족에 귀속되었으며 평민은 다만 연료채취나 혹은 목축지로 이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화전(火田)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신라 문무왕 8년에 처음으로 공전제도(公田制度)가 시행되어 산림을 국유화하고 국가공로자에게 녹봉(祿俸) 또는 식양지(食糧地)로 분봉(分奉)함에 따라 785년 이 지역 명주 관할 9군(郡) 25현(縣)이 명주군왕(溟州郡王)에게 식량지로 분봉되어 사양림(私養林)으로 성장해오다가 고려 충숙왕(忠肅王)때는 1326년에 사점(私占)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산림은 국민의 공용(共用)에만 이용하게 되었으며 태조 4년(1395년)에는 사점을 강력히 금하고 태종 4년(1404년)에는 산림내의 개간행위를 일체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산림내에 조성되는 분묘의 면적도 양반과 서민의 품등(品等)에 따라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선조들은 사양림(私養林) 또는 금송계(禁松契)를 만들어 지방향약(地方鄉約)에 따라 조림의 평가를 엄격히 실시 조림사상을 고취(鼓吹)시킴으로써, 풍부한 임상(林相)이 유지되었다.

## 2. 양양지역 산림 사업의 변천

### 1) 조선시대

조선시대 말기인 1905년 11월 17일 일제와의 을사보호조약으로 일제 통감부 하에 산림이 산업화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식산국(植産局)에 산림과가 설치됨에 따라 산림을 제도적으로 관리경영하게 되었다.

### 2) 일제시대

일제는 1919년에 금송계림(禁松契林), 사찰림, 묘지 등을 사유림(私有林)으로 정하고 세금 부과를 위한 세부측량(稅賦測量)과 아울러 국유림(國有林)과 사유림(私有林), 공유림(公有林)과 공유림(共有林)으로 구분하고 국유림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였으며 불요존국유림은 또다시 갑종(甲種)과 을종(乙種)으로 나누었다. 요존국유림은 영구 국유림으로 하고 영동지역에는 강릉에 총독부 식산국 산림과 출장소가 주재 관할하였으며 갑종 불요존국유림은 부분림 또는 조림대부림으로 일본인에게 대여하였고 을종 불요존국유림은 연고자에게 매각예정지로 정하여 공사유림과 같이 지방장관이 관리하였다.

1934년 4월 1일 영림관서 설치법 개정으로 강릉영림서가 설치됨에 따라 총독부 산림과 출장소 관할의 국유림 경영이 강릉영림서로 이관되었으며 본서 산하에 삼림보호구를 두어 산림보호에 전념하게 하는 한편 지방 주민에게는 산채, 약초, 고지, 수실 등을 양여하는 조건으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국유림 보호조합을 조직하게 하여 자율적으로 국유림 보호에 임하게 하였다. 또 본서 산하에 목재 공급을 위한 작업소를 설치하였으며 국유림 조림사업을 위하여 조림사업소를 두어 자체묘목생산을 실시하였다.

1919년부터 요존림의 불요존국유림과 사유림 등은 소유자의 조장정책을 실시하였고 각도의 산업과 내에 임무계를 군에 산업계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특히 벌채를 억제하고 나지를 조사하여 산지사방을 실시했다.(1924년 임야조사사업 완료, 1925

년 보조 조림사업 완료, 1933년 8월 조선사방사업령 공포) 그리고 보안림 제도를 두어 풍치림, 사찰림, 수원함양림, 어부림을 지정하여 사업제한을 하였다.

일제의 한반도 영구지배 야심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임정을 전환하게 된다. 즉 민유림지도방침을 제정 공포하여 황폐림 복구를 지향하는 한편 벌채지도 지침으로 벌채를 규제하고 조림장려로 육림에 힘썼다. 또 산림보호 사업으로는 임야세를 부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보호직원을 채용 등 산림보호업무를 강화하였다.

1942년 6월 18일 목재통제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는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목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왕의 용재공급은 국유림, 연료공급은 민유림이라는 원칙의 전환, 민유림에서도 입목(立木)이 난벌되고 국유림에서도 입목매각 전(前)에 벌채허가가 나는 등 파행임정이 자행되었다. 동시에 조선목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땔감 이외의 모든 목재를 취급케 하였으며 군에 원목생산조합이 조직되었다.

### 3) 광복 후 산림사업

광복 후 일제시대 법령인 삼림령이 그대로 적용 시행되었으며 그 후 각종법령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6·25한국전쟁을 겪었으며 1951년 9월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1961년 6월 2일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고 1961년 12월에 비로소 산림관계 모법인 산림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또 극도로 황폐된 산림복구를 위하여 1962년 1월에는 사방사업법이, 1963년 2월에는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한 시법으로 시행하고 1972년에는 산림개발법이 1977년에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야생조수를 보호 증식하고 있다.

#### (1) 국유림 경영

광복 직후부터 강릉영림서가 양양지역 국유림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기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 외에 일본인 소유였던 적산임야도 접수하여 준국유림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광복 전후의 혼란기를 통한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산림보호 위주 정책을 펴 보호

직원을 증원하는 한편 기 조직된 국유림 보호조합을 활성화 도남벌 방지, 산불방지 및 산림개간 방지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산림병충해와 국유림내 화전 정리사업도 병행하였으며 이외에서는 부정임산물 단속을 강화하였다. 국유림 시업에 있어서는 국유임야 시업안 조사와 조림사업 강화를 위해 자체묘포를 확장 산지조림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또 임야관리예산 확보를 위해 국유림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 임목벌채도 강화하였다.

1961년부터는 국유림시업을 절대녹화 위주로 하여 벌채를 지양하였으며 국유림보호조합을 해체하는 대신 부락산림제로 하여금 연대보호를 꾀하였다.

1970년대 초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왕의 분산조림 대신 집단조림을 실시하였고 목재수급을 위해 용재림 조성과 산벌정책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용재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임도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979년 시작된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서는 산림의 합리적 경영관리 목표로 보호생산적인 시업을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하여 휴양림 조성도 실시하였다.

## (2) 민유림 경영

민유림은 그 소유 목적이 산림경영이라기 보다는 묘지, 광산, 채탄, 가보적인 것으로 다양한 임상을 이루고 있다. 또 소유건수 당 면적이 극히 적은 관계로 임목축적이 국유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경영면에서도 장기투자를 요하고 수익성이 낮은 특수성에 기인된 산주의 투자욕 고취를 위해 벌채를 허가하고 산지육성을 도모케 하였다. 또 자율적 산림보호를 위해 마을단위로 산림계, 시군별로 산림조합을 조직하였다. 산지조림은 산주에게 조림을 권장하고 당초 연료림 조성을 시행해 왔으나 현재는 연료림 조성을 지양하고 무육, 간벌, 조림 등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묘목대금, 작업비, 시비, 조림비, 전액을 보조하고 산주가 작업 불이행시는 산림조합이 대행하고 있다.

황폐된 임지는 사방사업의 대폭적인 강화로 1, 2차 치산녹화기간 중 완료하였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로는 최근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만연되면서 수간주사 및 항공방제등 대대적인 방제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야생조수 보호와 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동계 적설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는 식이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 3. 임업의 개황

#### 1) 소유별 임야면적

총 임야면적은 52,480ha이며 소유별로는 국유림이 36,004ha로 전체 임야면적의 68.6%이며 공유림이 1,707ha로 3.3%이고 사유림이 14,769ha로 28.1%에 해당된다. 국유림 중에는 산림청 소관이 35,922ha로 68.4%이며 나머지 31.6%는 정부의 타 부처 소관이다. 공유림 중 군유림이 1,688ha로 전체의 대부분인 98.9%를 차지하였으며 도유림은 19ha로 1.1%에 불과하였다.

또 과거 5년간 임야면적의 변동을 보면 2002년 52,528ha에서 52,451ha로 77ha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유림과 공유림은 다소 늘어난 것에 비해 사유림이 14,804ha에서 14,736ha로 68ha 감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표3-1>

<표3-1> 양양군의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ha)

연별	합 계 Total	국유림 National forest			공유림 Public forest		사유림 Privates forest	
		산림청소관 Under Forestry Adiministration	타부처소관 Under other national govern- ment authorities	도유림 Provin- ceowned	군유림 Gun- owned			
2002	52,528	36,000	35,933	67	1,706	19	1,687	14,822
2003	52,513	36,003	35,936	67	1,706	19	1,687	14,804
2004	52,510	35,983	35,916	67	1,716	19	1,697	14,811
2005	52,498	35,985	35,915	70	1,720	19	1,701	14,793
2006	52,484	35,988	35,909	79	1,713	19	1,694	14,183
2007	52,480	36,004	35,922	82	1,707	19	1,688	14,769
2008	52,451	36,008	35,925	83	1,707	19	1,688	14,736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2) 임상별 산림면적

임상별 산림면적은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임야면적 중 임목지가 51,353ha로 97.8%이고 무임목지가 2.2%인 1,127ha를 점하고 있다.

임목지 중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그리고 혼효림 비율은 34.9%, 40.4%, 24.7%로서 활엽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간의 임상변화의 특이사항으로 침엽수림이 2003년 18,270ha에서 2008년 17,802ha로 468ha 감소한 반면 활엽수림은 2003년 20,481ha에서 365ha 증가한 20,846ha로 집계된 것이다.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소나무의 쇠퇴 외에도 양양산불로 인한 소나무 숲의 피해와 피해지 복구에 소나무의 다양한 활엽수림 조림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3-2〉

〈표3-2〉 양양군의 임상별 산림면적

(단위 : ha)

연별	합계 Total	임목지 Forest land with trees					무임목지 Forest land with trees				
		계 Sub total	침엽 수림 Conifer	활엽 수림 Non- conifer	혼효림 mixed	죽림 Bam- boo	계 Sub total	미입 목지 Un- stocked	황폐지 Denu- ded	개간지 Recl- aimed	제 지 Miscel- laneous
2002	52,528	51,396	18,288	20,436	12,732	-	1,132	23	217	-	892
2003	52,513	51,466	18,270	20,481	12,715	-	1,047	47	69	-	931
2004	52,510	51,450	18,248	20,494	12,708	-	1,060	58	57	-	945
2005	52,498	51,278	18,074	20,500	12,704	-	1,220	218	23	-	979
2006	52,484	51,124	17,672	20,731	12,721	-	1,360	329	31	-	1,000
2007	52,480	51,353	17,906	20,737	12,710	-	1,127	79	23	-	1,025
2008	52,451	51,360	17,802	20,846	12,712	-	1,091	52	11	-	1,028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3) 임상별 임목축적

총 임목축적량은 2008년 현재 8,087,187m<sup>3</sup>로써 2003년 임목축적량 5,970,115m<sup>3</sup>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엽수림의 임목축적량이 2003년 1,427,777m<sup>3</sup>에서 2008년 2,274,124m<sup>3</sup>로 63%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은 혼효림의 79%, 활엽수의 75% 순이었다.

양양군의 ha당 임목축적량은 148m<sup>3</sup>로 전국의 평균임목축적량 82m<sup>3</sup>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양군의 지리기상학적 여건과 백두대간의 동사면에 금강송과 같은 우량한 소나무 임분이 다량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표3-3〉

〈표3-3〉 양양군의 임상별 임목축적 (단위 : m³)

연 별	합계 Total	침엽수 Conifer	활엽수 Non-conifer	혼효림 mixed	죽림(속) Bamboo
2002	5,812,896	1,382,764	2,944,818	1,485,314	-
2003	5,970,115	1,427,777	3,019,743	1,522,595	-
2004	6,132,405	1,473,950	3,096,625	1,561,830	-
2005	6,283,368	1,507,252	3,173,886	1,602,203	-
2006	6,427,052	1,539,628	32,424,862	1,644,562	-
2007	7,768,993	2,152,361	3,687,556	1,929,076	-
2008	8,087,187	2,274,124	3,806,164	2,006,899	-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4. 임산자원

### 1) 생산임지

임산자원은 임지에서 생산되는 산림 주산물인 목재와 수실·수액·버섯류·산채류·약재류 등 산림 부산물을 말하며 이러한 주부산물 산지를 생산임지라고 한다. 생산임지는 토양이 비옥하고 임산물 생산관리를 위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된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림 등을 공익임지라고 하며 공익임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전용도로 지정된 지역이며 산림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효능 특히 산림의 대기정화기능, 수자원함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삼림휴양 등의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생존에 관여하는 중차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 (1) 목재생산

목재 생산량은 2008년 기준 18,121m³로 연도별 벌채계획 등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2003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안선을 끼고 있는 양양군의 해변지역에 입지한 수림은 대부분 인공림으로 방풍림 내지 방사림 어부림 등의 풍치 보안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주요목재생산은 내륙부의 백두대간 동사면에 위치한 양호한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2) 부산물 생산

### 가. 버섯

송이의 고장으로 버섯생산량은 2008년 기준 139,398kg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도별 생산량의 변화를 보면 2004년 213,775kg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송림면적 감소와 기상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산나물

산나물 채취량은 버섯과 함께 농산촌의 주요소득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양양군의 산나물 생산량은 2008년 기준 203,300kg이며 이는 2003년 기준 207,440kg의 절반 이하로 매년 그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산불피해와 산나물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그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다. 기타부산물

종실생산량은 2004년 46,466kg에서 매년 현격히 저하되어 2008년 현재 종실생산량이 34,807kg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약용재료 채취량도 2004년 87,184kg에서 2008년 69,169kg로 증가하였다.〈표3-4〉

### 라. 보호수 지정 현황

지정보호수는 모두 20개소의 26본이다. 수종으로는 소나무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갈참나무, 느티나무 순이었으며 보호수 유형으로는 당자목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풍치목이었다. 지정보호수의 최고 수령은 현북면 말곡리에 소재하는 소나무로 550년이며 흉고둘레가 460cm이며 수고는 25m에 이르고 있다.〈표3-5〉

〈표3-4〉 양양군의 임산물 생산량 현황 (단위 : m³)

연 별 읍면별	용재(m³) Timber	연료(M/T) Fuel	농·용자재(t) Agricultural material	종실(Kg) Wild fruit and nut	버섯(Kg) Mushroom
2002	5,104	1,300	9	52,009	184,710
2003	-	-	-	-	-
2004	3,191	2,950	-	46,466	213,775
2005	12,906	3,105	17,240	-	198,041
2006	23,454	3,193	3,700	35,773	160,574
2007	16,022	2,563	3,500	34,315	145,824
2008	18,121	2,563	3,500	34,807	139,398

연 별 읍면별	섬유연료(Kg) Fiber material	수지(Kg) Resin	약용(Kg) Medical use	토석류(m³) Soil & stones	산나물(Kg) Wild vegetable
2002	-	-	6,350	761,515	282,950
2003	-	-	59	2,621,610	207,440
2004	-	-	87,184	812	176,400
2005	-	-	86,405	831	183,420
2006	-	-	76,964	983	155,976
2007	-	-	62,713	862	127,740
2008	-	-	68,169	858	203,300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표3-5〉 양양군의 보호수 지정현황

지정번호	보호수 소재지		지 정 년월일	수 종	유 형	본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둘레 (cm)
	읍면동	리·번지							
합 계	16개소		-	-	-	21	-	-	-
양양소계	18개소		-	-	-	26	-	-	-
강원-양양-1 (03.2.8임해)	현북면	말곡리 72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550	25	460
강원-양양-2	서 면	상평리 340	82.11.13.	은행나무	풍치목	1	380	35	700
강원-양양-3	서 면	북평리 182	82.11.13.	느티나무	풍치목	1	350	18	500
강원-양양-4	강현면	중북리 산52	82.11.13.	굴참나무	풍치목	1	350	15	320
강원-양양-5 (05.5.21임해)	강현면	용호리 59	82.11.13.	향 나 무	풍치목	1	350	18	150
강원-양양-6	서 면	범부리 41	82.11.13.	옴 나 무	풍치목	1	300	35	640
강원-양양-7	양양읍	군행리 8	82.11.13.	느티나무	풍치목	1	200	15	520

지정번호	보호수 소재지		지정 년월일	수종	유형	본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둘레 (cm)
	읍면동	리·번지							
강원-양양-8	서면	범부리 산61	82.11.13.	소나무	풍치목	1	250	13	300
강원-양양-9	서면	오가2리 380	82.11.13.	갈참나무	풍치목	1	250	15	390
강원-양양-10	현북면	하광정리 3	82.11.13.	소나무	풍치목	1	200	9	150
강원-양양-11	강현면	사교리 38	82.11.13.	소나무	풍치목	1	250	20	250
강원-양양-12	강현면	적온리 86	82.11.13.	소나무	풍치목	1	250	15	270
강원-양양-13	양양읍	조산리 353	82.11.13.	소나무	풍치목	1	120	15	210
강원-양양-14	손양면	금강리 110	82.11.13.	소나무	풍치목	1	150	15	200
강원-양양-15	현남면	인구 2리	82.11.13.	갈참나무	풍치목	1	150	20	150
강원-양양-16	현남면	죽정자리 46	82.11.13.	소나무	풍치목	1	180	20	320
강원-양양-17	현남면	견불리 184	82.11.13.	갈참나무	풍치목	1	150	18	250
강원-양양-18	현북면	상광정리 561	06.02.03.	소나무	풍치목	6	400	18	250
강원-양양-19	서면	용소리 55	09.05.22.	소나무, 상수리나무	당자목	4	500	15	350
강원-양양-20	서면	감천리산29-3	09.05.22.	소나무	풍치목	1	350	15	340

자료 : 양양군청, 2009

## 5. 조림 및 사방사업

### 1) 조림

조림면적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8~75ha 정도였으나 2006년 약 10배 정도 증가한 375ha였고 그 이듬해인 2007년에는 그 두 배 이상인 831ha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8년도에는 182ha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 식재본수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조림실적의 급격한 변화는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식재수종은 대부분이 장기수인 소묘위주로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실수와 조경수는 식재 실적에 나타나지 않았다. <표3-6>

〈표3-6〉 양양군의 조림사업

(단위 : ha, 천본)

연 별 읍면별	합 계 Total		장기수 Long rotation species		유실수 Fruit&nut species		속성수 Fast- growing species		대묘수 Large trees		조경수 landscape trees		기 타 Others	
	면적 Area	본수 Seedlings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2002	66.0	168.7	57.0	163.0	-	-	-	-	-	-	-	-	9.0	5.7
2003	75.5	212.8	75.5	212.8	-	-	-	-	-	-	-	-	-	-
2004	28.0	68.0	23.0	65.0	-	-	-	-	-	-	-	-	5.0	3.0
2005	34.0	84.3	31.0	81.0	-	-	-	-	-	-	-	-	3.0	3.3
2006	375.0	442.0	76.0	176.0	-	-	-	-	-	-	-	-	299.0	266.0
2007	831.0	1975.8	749.0	1918.0	-	-	28.0	30.8	-	-	-	-	50.0	25.0
2008	182.0	451.0	11.0	5.0	-	-	-	-	13.0	17.0	-	-	158.0	429.0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2) 사방사업

사방사업은 2005년과 2007년 2차례 실시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29.3ha에 10만주가 식재되었고 2007년에는 1ha에 3,000주가 식재된 바 있다. 기간 중 해안사방이나 야계사방은 공사실적이 없었으며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은 연간차이는 있지만 매년 1~8개소씩 꾸준히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7〉

〈표3-7〉 양양군의 사방사업

(단위 : ha, 천본, 천원, km)

연 별 읍면별	산지 및 해안 사방 Hillside and coastal erosion control			야계사방 Stream channel improvement		사방댐 <sup>1)</sup> Erosion control dam	
	면적 Area	식재본수 Seedlings	공사비 Cost	연장 Length	공사비 Cost	개소 Place	공사비 Cost
2002	-	-	-	-	-	-	-
2003	-	-	-	-	-	-	-
2004	-	-	-	-	-	1	214,596
2005	29.3	100.0	2,199,898	-	-	8	1,600,250
2006	-	-	-	-	-	1	232,269
2007	1.0	3.0	46,671	-	-	3	519,248
2008	1.0	4.0	51,523	1.0	381,641	1	263,132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6. 임산자원 보호

### 1) 산림피해

산림피해는 그 유형에 따라 도벌, 무허가벌채, 불법산림형질변경, 산불 등이 있으나 산불은 별도 항에서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산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유형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5년간 도벌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무허가 벌채는 모두 4건이 발생했으나 그 규모가 0.67ha로 경미 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산림형질변경은 2002년 2건에서 2003년에는 20건으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12건, 2005년에 5건, 2006년에 3건, 2007년에 8건, 2008년에 18건 등 지속적으로 산림훼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5년간 총 피해면적은 7.01ha로 나타났다. <표3-8>

<표3-8> 양양군의 산림피해 상황

(단위 : ha, 천원)

연 별 읍면별	합 계 Total			도벌 De- forestation			무허가벌채 Unauthorized tree-cutting			불법산림형질변경 Forest exploitation			기 타 other		
	건 수 cases	면적 area	피해액 Amount damaged	건 수	면 적	피 해 액	건 수	면 적	피 해 액	건 수	면 적	피 해 액	건 수	면 적	피 해 액
2002	2	0.16	3,595	-	-	-	-	-	-	2	0.160	3,595	12	-	-
2003	32	58.130	624,629	-	-	-	-	-	-	20	58.130	624,629	12	-	-
2004	14	3.7	91,736	-	-	-	1	0.670	2,160	12	3.230	78,734	1	-	10,842
2005	12	1.3	79,454	-	-	-	2	-	887	5	0.830	70,447	5	0.470	8,120
2006	5	0.530	16,265	-	-	-	1	-	-	3	0.530	14,765	1	-	1,500
2007	11	1.160	62,377	-	-	-	-	-	-	8	0.700	28,532	3	0.5	33,845
2008	20	1.930	170,055	-	-	-	1	-	35	18	1.720	150,322	1	0.2	19,698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2) 산림병충해 방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양양군내 산림병충해 발생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으나 2007년부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였다.

발생병충해 내역으로는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3,700ha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흰불나방 발생면적 130ha, 오리나무잎벌레 60ha, 기타해충 490ha로 집계 되었다. 전체 병충해 발생면적 4,380ha 중 2,113ha에 대해 방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솔잎혹파리 피해발생면적 3,700ha 중 1,874ha, 흰불나방 피해발생면적 130ha 중 90ha, 오리나무잎벌레 피해 발생면적 60ha 중 32ha, 기타해충피해 발생면적 490ha 중 117ha에 대해 방제활동을 하였다.

기상변화로 인한 병해충의 서식환경 변화 외에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종류의 병충해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예찰활동과 적절한 방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표3-9〉

〈표3-9〉 산림병충해 방제 현황 (단위 : ha)

연 별 읍면별	합 계 Total		솔잎혹파리 Pine gall midge		소나무 재선충 Pine wood nemate		잣나무 넓적잎벌 Black-tipped Sawfly	
	발생면적 Occurrence	방제면적 Prevention	발생면적	방제면적	발생면적	방제면적	발생면적	방제면적
2002	-	-	-	-	-	-	-	-
2003	-	-	-	-	-	-	-	-
2004	-	-	-	-	-	-	-	-
2005	-	-	-	-	-	-	-	-
2006	-	-	-	-	-	-	-	-
2007	1,750	876	1,450	752	-	-	-	-
2008	2,630	1,237	2,250	1,122	-	-	-	-

연 별 읍면별	연별흰불나방 Fall wedworm		오리나무 잎벌레 Japanese alder leaf beetle		밤나무해충 Chestnut insect pests		기타해충 Others	
	발생면적 Occurrence	방제면적 Prevention	발생면적	방제면적	발생면적	방제면적	발생면적	방제면적
2002	-	-	-	-	-	-	-	-
2003	-	-	-	-	-	-	-	-
2004	-	-	-	-	-	-	-	-
2005	-	-	-	-	-	-	-	-
2006	-	-	-	-	-	-	-	-
2007	40	30	30	20	-	-	230	74
2008	90	60	30	12	-	-	260	43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3) 임도시설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관리를 하여 1988년부터 임도를 개설해 오고 있다. 공사비는 1994년까지는 일부 수혜자의 자부담을 포함한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공사비가 충당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임업경영자의 자부담 없이 사업이 수행되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임도개설 거리는 총 75.14km이며 총공사비는 약 37억 7천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km당 약 5,000만원이 투입되었다.〈표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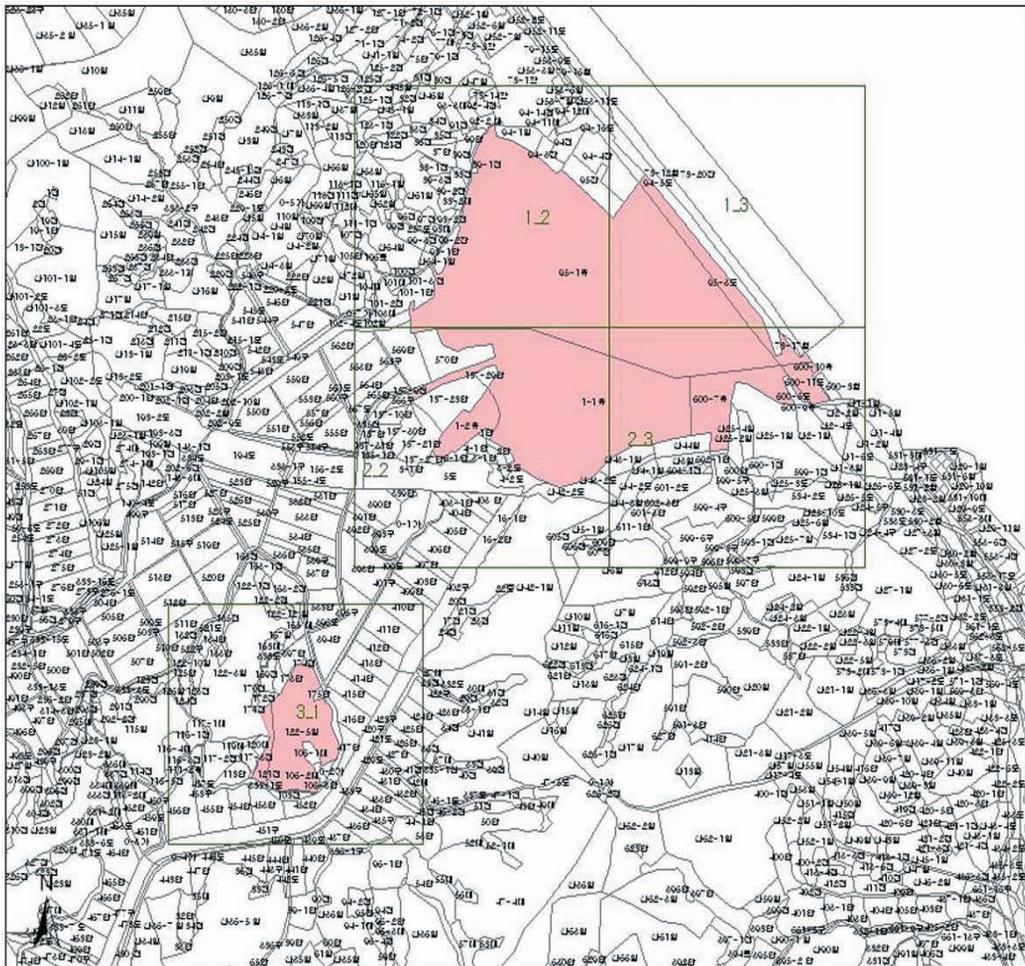
〈표3-10〉 임도시설 현황

연별	구 간	거리 (km)	공 사 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1988	현남 견불리	2.10	41,500	17,020	2,451	13,888	8,141
1989	현남 견불리-하월천리	2.03	44,250	17,700	2,655	15,045	8,850
1990	현남 주리 입암-하월천리	5.00	117,915	47,166	7,075	40,091	23,583
1991	현남 주리 현북 잔교리	5.00	123,278	61,048	9,157	51,891	1,182
1992	현남 정자리 현북 잔교리	6.10	171,760	68,704	10,306	58,398	34,352
1993	현북 잔교리 명지리-대치리	3.00	116,394	46,558	6,984	39,574	23,278
1994	현북 잔교리 명지-원일전리	8.00	392,023	156,809	23,521	133,288	78,405
1995	현북 장리-손양 주리 손양 남양리-우암리 현남 주리	13.00	610,350	291,850	254,800	63,700	-
1996	손양 상왕도리-양양 월리 손양 주리- 현북말곡리	12.16	690,222	337,997	281,780	70,445	-
1997	현남 북분리 손양 삼존리-장리 현북대치리-여성전리	8.50	540,494	258,859	225,306	56,329	-
1998	현북 대치리-상광정리	2.00	120,110	57,289	50,257	12,564	-
1999	현북 대치리-잔교리 상광정리-하광정리	2.03	183,007	88,737	75,416	18,854	-
2000	손양 상왕도리-서면 수리	2.07	156,000	78,000	62,400	15,600	-
2001	현남 하월천리-상월천리	4.15	463,708	231,854	185,483	46,371	-

자료 : 양양군청, 2009

#### 4) 야생조수보호

야생조수 보호 구역은 전체 지정면적이 226,276㎡ 이며, 현남면 전포매리에 4개소 현남면 광진리에 6개소 등 총 10개소가 지정되어있다. 이중 해안지역이 8개소 내륙지역에 2개소이다. 토지 소유자는 국유지가 6개소, 공유지가 2개소 사유지가 2개소이며 야생조수보호구역의 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자료 : 양양군청, 2009

야생조수 보호구역 지정도

〈표3-11〉 양양군의 야생조수 보호구역 지정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	-	288,311	262,276	-	-
현남면 전포매리	1-1	유지	71,976	71,976	-	공유(강원도)
현남면 전포매리	1-2	유지	5,382	5,382	-	공유(강원도)
현남면 전포매리	122-3	임야	26,733	698	현남면 전포매리 106	김선래
현남면 전포매리	122-5	임야	18,091	18,091	현남면 전포매리 106	김선래
현남면 광진리	95-1	유지	141,010	141,010	-	국유(기획재정부)
현남면 광진리	95-3	유지	9,399	9,399	-	국유(국토해양부)
현남면 광진리	600-7	유지	12,333	12,333	-	국유(기획재정부)
현남면 광진리	600-9	유지	362	362	-	국유(기획재정부)
현남면 광진리	600-10	유지	230	230	-	국유(기획재정부)
현남면 광진리	600-11	유지	2,795	2,795	-	국유(국토해양부)

자료 : 양양군청, 2009

## 7. 임정기관 및 조합

### 1) 양양국유림관리소

#### (1) 연혁

1929년 11월 1일 강릉영림서 양양보호구가 설치되었고 1991년 6월 12일 강릉영림서 양양국유림관리소로 승격되었으나 행정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1999년 5월 24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연곡국유림관리소에 통합되었다가 2006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로 다시 개칭하게 됨으로 양양지역은 물론 양양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청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임무

주요임무는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유 임산자원의 산업화, 국유림의 공익기능 확대, 국유림 경영의 선진화 등이다.

### (3) 기구 및 정원

기구는 서무계 외에 보호관리, 경영계획, 자원조성, 고성경영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장을 포함하여 정원은 22명이다. <표3-12>

<표3-12> 양양국유림관리소의 직원현황

구분	계(명)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원	22	1	5	3	4	4	5
현원	21	1	5	4	2	4	5

자료 : 양양국유림관리소, 2009 청원직 3명 별도

### (4) 관할면적

관할행정구역면적은 131,309ha이며 그중 양양군의 국유림은 57,917ha로 약 44%를 차지하며 산림은 총 106,991ha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표3-13>

<표3-13> 양양국유림관리소의 관할면적

시·군별	행정구역면적 (ha)	산림이용(ha)			인구수 (천명)
		계	국유림	사유림	
계	131,309	106,991 (100%)	63,591 (59%)	43,400 (41%)	158
양양군	57,917	52,484	35,909	16,575	35
속초시	10,524	8,081	1,679	6,402	88
고성군	62,868	46,426	26,003	20,423	34

자료 : 양양국유림관리소, 2009

### (5) 백두대간 현황

백두대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3필지, 14,216ha가 백두대간과 접하고 있으며 그중 핵심구역이 46필지, 11,703ha이고 완충구역이 7필지에 2,513ha이다.

또 양양관리소 관내 임도현황은 1975년부터 2002년 사이에 248.99km가 조성되어 밀도 (m/ha)는 6.93m이다. 이는 전국 2.33m보다 높으나 독일이나 미국의 40.0m, 10.0m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3-14>

〈표3-14〉 양양국유림 관할내의 백두대간 임도현황

구 분	합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거 리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양양	53	14,216	46	11,703	7	2,513	진부령→58.4km, 샘터→49.1km, 쇠나드리→57.1km, 1,201고지

자료 : 양양국유림관리소, 2009

## 2) 국립공원

### (1) 설악산 국립공원 연혁

1965년 11월 5일 천연보호구역 163.4km<sup>2</sup>,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후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 지정(174km<sup>2</sup> 건설부고시 28호)되었다.

또 1982년 8월 12일 생물권 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393.49km<sup>2</sup>)으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557호로 공원 면적이 174km<sup>2</sup>에서 373km<sup>2</sup>로 확대되었다.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된 직후인 1987년 8월 5일 설악산관리사무소가 개소됨과 동시에 오색, 백담, 장수대분소가 설치되었다.

1993년 9월 13일 설악산관리사무소 대청분소가 개소하였으며 2001년 10월 8일 환경부고시 제2001-129호로 2003년 8월 30일 환경부고시 제2003-139호로 공원면적이 398.593km<sup>2</sup>로 확대 지정되었으나 2009년 7월 15일 공원면적이 398.222km<sup>2</sup>로 다소 축소되었다.(환경부고시 제2009-107호)

### (2) 국립공원 현황

#### 가. 공원의 특성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1,708m)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라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으로 구분되어지며 수많은 기암과 계곡, 폭포, 산봉으로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악형 공원이다. 또한 천연보호구역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서 학술적으로도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중 인지도 1위 공원이며,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인증한 “국제적 수준”의 국립공원이다.

나. 용도 및 소유별 현황

가) 공원면적

〈표3-15〉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km<sup>2</sup>)</span>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찰지	비고
면적	398.222 (100%)	332.634 (83.5%)	3.029 (0.8%)	21.829 (5.5%)	40.730 (10.2%)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 2009

나) 용도지구별 면적

〈표3-16〉 설악산국립공원 용도지구별 면적			
구분	면적(km <sup>2</sup> )	비율(%)	비고
계	398.222	100.0	
자연보존지구	313.774	78.8	
자연환경지구	81.087	20.4	
자연마을지구	0.433	0.1	
밀집마을지구	0.540	0.1	
집단시설지구	2.388	0.6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 2009

다) 행정구역별 면적

〈표3-17〉 설악산국립공원 행정구역별 면적		
구분	읍·면·동	면적
계	1개 시 3개 군 9개 읍·면·동	398.222(100%)
속초시	설악동, 도문동, 노학동	6.686(17%)
양양군	강현면, 서면	75.688(19%)
인제군	인제읍, 기린면, 북면	234.283(59%)
고성군	토성면	21.565( 5%)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 2009

다. 관리기구 및 조직체계

가) 조직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자원보전과, 탐방시설과, 행정과, 외설악팀 등 3과 1팀 체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오색분소, 백담분소, 장수대분소, 대청분소, 신성봉분소 등 5개 분소로 조직되어 있다.

나) 관리인력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정원 91명이며 일반직과 기능직, 운영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 92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표3-18〉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원현황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운 영 직
		1,2 급	3급	4급				5급				6급				운 전	특 정	
				행정	레인지어	조사	기술	행정	레인지어	조사	기술	행정	레인지어	조사	기술			
정원	91	1	2	2	2	1	1	2	5	2	1	9	24	8	5	2	1	23
현원	78	1	3	2	6	-	-	1	4	-	2	5	26	2	3	2	3	18
과부족	-13	-	1	-	4	-1	-1	-1	-1	-2	1	-4	2	-6	-2	-	2	-5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09

\*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 92명

안전관리(4), 자연환경안내원(19), 수역시설물관리(7), 탐방안내(3), 환경미화(7), 영선(3), 보호단(6), 녹색순찰대(34), 재난구조대(8), 인턴(1)

라. 탐방객 현황

탐방객 현황은 〈표3-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기간 중 2007년이 3,463천명으로 가장 탐방객수가 많았으며 2000년대 들어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19〉 설악산 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3년 대비
탐방객	2,884	2,970	3,300	3,125	2,677	3,463	3,267	△6%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 2009

\* 2009년 10월 31일 기준 탐방객 : 3,208천명(전년대비 12.8%증가)

### 3) 낙산도립공원

#### (1) 일반현황

##### 가. 주요연혁

1979년 6월 22일 동해도립공원 지정(9.1km<sup>2</sup>)된 후 1988년 12월 17일 공원 명칭을 동해도립공원에서 낙산도립공원으로 변경하였다.

1989년 10월 17일 낙산도립공원구획을 재검토하여 수산포지구를 폐지하고 오산포지구를 신설하였으며 2004년 12월 31일 공원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을 통해 당초면적 9.1km<sup>2</sup>를 8.67km<sup>2</sup>로 조정하였다.

또 2007년 1월 26일 공원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8.67km<sup>2</sup>→8.66km<sup>2</sup>)이 있었으며 2008년 5월 30일 공원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8.658km<sup>2</sup>→8.659km<sup>2</sup>)이 있었다.

2008년 12월 5일 낙산도립공원계획변경과 2009년 5월 1일 낙산도립공원계획변경을 통해 동호리항구, 하항정리 일부변경이 있었다.

#### (2) 낙산도립공원 현황

##### 가. 용도지구 현황

낙산도립공원은 총 8,658,922m<sup>2</sup>로 용도지구별로 살펴보면 공원지역보전지구가 6.7%인 580,000m<sup>2</sup>이고 공원자연환경지구가 52.3%인 4,525,387m<sup>2</sup>이며 공원자연마을지구가 10.5%인 913,698m<sup>2</sup>이고 공원밀집마을지구가 9.4%인 812,590m<sup>2</sup>이며 공원집단시설지구가 21.1%인 1,827,247m<sup>2</sup>이다.

##### 나. 집단시설지구 현황

집단시설지구현황는 전체 1,827,247m<sup>2</sup> 중 숙박시설지 26.56%, 상업시설지 11.02%, 공공시설지 0.45%, 녹지 24.39%, 기타시설지 34.11% 등으로 나타났다.<표3-20>

〈표3-20〉 낙산도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현황

(단위 : m<sup>2</sup>)

구 분	계	숙박시설비	상업시설지	공공시설지	녹 지	기타시설	유보지
계	1,827,247	485,299	201,367	8,157	445,620	623,234	63,570
낙 산 (79. 6.22)	846,258	120,025	108,641	6,797	305,410	305,385	-
하조대 (79. 6.22)	528,978	229,836	59,367	1,360	56,223	182,192	-
오산포 (89.10.17)	452,011	135,438	33,359	0	83,987	135,657	63,570

자료 : 낙산도립공원, 2009

○ 단독시설 현황 : 15개소 172,122km<sup>2</sup>

#### 다. 탐방객수

탐방객수는 2005년 990,447명이었으나 그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8,667,272명으로 875%증가하였다. 그리고 계절별로는 2/4분기와 3/4분기에 탐방객이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여름철 휴가집중현상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표3-21〉

〈표3-21〉 낙산도립공원 탐방객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분 기 별			
		1/4	2/4	3/4	4/4
2005	990,447	123,065	452,574	176,935	237,873
2006	4,025,550	160,609	515,695	3,104,292	244,954
2007	4,612,671	128,484	415,539	3,834,150	234,498
2008	8,667,272	164,043	417,104	7,973,001	113,124
총 계	18,295,940	576,201	1,800,912	15,088,378	830,449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9

#### 라. 관리조직 현황

낙산도립공원 관리조직의 정원은 15명이며 독립공원관리소장1, 관리담당1 그 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산림조합

과거의 산림계를 승계하는 조직으로 1961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1980년 특별법 제정으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갖춘 협동조직체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국가 산림시책을 수행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1) 일반현황

양양산림조합은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91-13에 위치하며 551㎡ 대지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건평 1130.08㎡로 1994년에 신축되었다.

양양산림조합은 1955년 사단법인 양양산림조합 조직(산림보호 임시조치법)으로 시작하여 1962년에 양양산림조합으로 설립되어 유지하다 1993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양양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되었고 1996년도에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0년도에 양양산림조합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양양읍에 소재하는 지역조합으로서 속초시와 양양군 지역의 업무를 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다.

총 조합원은 1,194명이고 임업기술지도, 사유림 경영지도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복지후생사업을 통해 조합자립기반 구축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임업 노동력의 확보와 선진 임업기술지도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의 산림을 산림조합이 대신하여 경영해드리는 대리경영사업, 산림경영에 대한 임업기술지도사업, 조림·육림·숲가꾸기사업·산림보호 등 산림자원조성사업, 자연휴양림조성·산촌종합개발 등 임업경영기반구축사업, 임산물의 생산·판매·알선을 위한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사업, 임업기반 구축을 위한 임업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조합 관할지역의 산림은 60,560ha 중 국유림 37,991ha, 사유림 20,620ha, 공유림 1,959ha이 있다.

### (3) 주요업적

47년 역사를 갖는 양양산림조합은 지역 내 산림의 복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임업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04년도 태풍 루사, 매미 산사태복구사업을 친환경 경사업으로 성실히 시공하여 지역 산림분야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확립 하였다. FTA 등에 따른 세계 무역질서의 새로운 변모에 적절히 대응하고 유엔환경개발 회의,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고조로 인한 산림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 거래 등으로 새로운 산림에 대한 가치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림조합은 전망이 매우 밝다.

양양산림조합은 전 임직원 및 조합원과 협동정신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2008년도 회원조합 종합경영평가에서 경영우수조합으로 선정되었다.

양양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양양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은 예대비율 77.6%의 구조로 건실하게 운영되어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대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금융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주조합원 가입확대로 산주중심의 조합으로 거듭나고 건실한 재무구조실현으로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높임과 상호금융사업의 활성화로 조합원의 생산활동과 가계자금 적기지원으로 상호금융의 조기정착과 고객서비스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5) 국유림대부

황폐한 국토를 조기녹화하기 위하여 1950년대 후반에 조림대부제가 시행되었으며 양양군 관내의 국유림 대부현황은 포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부사용허가 건수는 27이며 총 27필지에 면적은 35,128,660㎡이며 수대부자는 산림조합중앙회이다. 대부림의 용도는 실습림이며 대부허가 시작일은 1993년 12월 28일 이고 허가 만료기간은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다. <표3-22>

〈표3-22〉 국유림 대부 현황

번호	대부 사용허가	개 소	지 번	용도별	지 적 (㎡)	면 적 (㎡)	수 대부자	기간 갱신 허가일	(최초) 허가 시작일	허가 만료 기간
		2건	27필지	실습림	49,885,080	35,128,660				
1	사용허가	현남주	산1	실습림	785,081	785,009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주	산1-1	실습림	770	770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주	120-12	실습림	45	45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주	120-15	실습림	166	166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주	120-5	실습림	337	337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하월천	산1-1	실습림	11,779,726	10,921,658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하월천	633-1	실습림	446	446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하월천	산198-3	실습림	1,098	1,098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1-1	실습림	3,763,192	1,929,035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8-1	실습림	659	659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274	실습림	463	463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152-15	실습림	36	36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7-1	실습림	2,688	2,688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152-13	실습림	935	935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152-8	실습림	313	313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152-10	실습림	283	283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1-1	실습림	1,963	1,963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번호	대부 사용허가	개소	지번	용도별	지적 (㎡)	면적 (㎡)	수 대부자	기간 갱신 허가일	(최초) 허가 시작일	허가 만료 기간
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9-1	실습림	814	814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3-1	실습림	1,851	1,851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정자	산58-1	실습림	3,102,459	3,060,686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정자	산58-2	실습림	204,791	204,791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2	사용허가	현남정자	산58-3	실습림	2,129	2,129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정자	산58-4	실습림	1,332	1,332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북대치	산1	실습림	3,960,793	3,957,084	산림조합 중앙회	2007. 06.01.	1997. 01.22.	2012. 06.30.
	사용허가	현북명지	산92	실습림	366,843	366,843	산림조합 중앙회	2007. 06.01.	1997. 01.22.	2012. 06.30.
	사용허가	현북어성전	산2	실습림	25,642,264	13,623,623	산림조합 중앙회	2007. 06.01.	1997. 01.22.	2012. 06.30.
	사용허가	현북어성전	산3	실습림	263,603	263,603	산림조합 중앙회	2007. 06.01.	1997. 01.22.	2012. 06.30.

자료 : 양양군청, 2009

집필 : 박용진

## 각주

1) 수해복구사업 시설은 제외

## 참고문헌

양양군, 양양군통계연보, 2008.  
 산림청, 산불예방과 진화, 1996.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양양군, 襄州誌, 1990.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 IV. 수산

## 1. 어가 및 어가인구수

지형적으로 해안선 가까이 태백산맥이 뻗어 있고, 해안선은 약 44.54km 정도로 강원도 전체 해안선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관할 수면적은 716,302km<sup>2</sup>(양양군 면적의 114%), 해안 직선길이는 32,231m이다.

또한 크고 작은 어항이 12개 있으나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어항은 없다. 따라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은 1980년대 646여 가구 3,353여 명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말 현재 300여 가구이며, 어가인구는 968여 명에 달한다. 현재 13개의 어촌계(복지7, 자립4, 성장2)가 있으며, 총 378명이 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520여 명에 달한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어가 및 어가인구수를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 2. 수산물 어획량

주요 어종은 가자미, 콩치, 학콩치, 넙치, 도루묵, 대구, 감성돔, 멸치류, 명태, 방어, 복어, 송어류, 연어, 임연수어, 쥐치류, 청어, 새우, 골뱅이, 문어, 오징어이며 그중에서 가자미, 방어, 임연수어, 오징어는 기타 다른 어종에 비하여 많은 어획량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어종이다.

2009년 수산물 생산실적은 2,159톤으로 위판가격으로는 9,125백만원이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어획고는 <표4-1>에 표시하였다. 명태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 수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현재 급격히 줄어든 실정이다.

<표4-1> 양양군의 어획고(2004~2008년)

(단위 : kg)

어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2,047,358	1,781,226	1,402,712	1,767,316	2,158,654
가자미	150,477	157,000	186,822	167,479	132,732
콩 치	6,973	6,366	466	1,625	30,256
학콩치	2,394	3	-	444	363
넙 치	12,455	21,106	13,423	13,200	26,859
도루묵	70,988	63,224	46,950	107,474	41,792
대 구	64,559	106,455	103,677	146,863	32,759
감성돔	17,387	19,778	12,946	10,992	30,971
멸치류	74,638	21,950	140	647	225
명 태	150	34	48	10	11
방 어	100,446	62,988	35,012	143,328	221,219
복 어	1,177	3,321	4,483	6,253	27,472
송어류	125,433	165,881	241,864	83,047	2,297
연 어	8,903	5,102	5,870	18,165	19,644
임연수어	141,046	73,131	62,599	235,379	224,477
쥐치류	10,745	11,113	5,963	43,059	52,042
청 어	11,684	9,745	8,788	3,963	1,535
새 우	12,312	6,341	6,604	6,291	5,744
골뱅이	14,582	14,016	21,663	18,028	16,478

어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문 어	101,562	84,269	88,519	85,944	83,796
오징어	165,365	202,457	186,151	299,732	244,877
기 타	954,082	746,946	370,724	375,393	863,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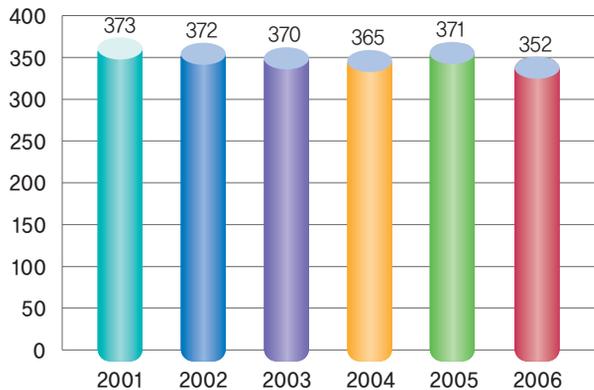
상기의 어류 중에서도 연어는 양양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매년 남대천을 중심으로 회귀한 연어가 14,000마리 정도 포획되고 있다.

### 3. 어선 보유 현황

어선의 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21척 1,040톤(평균 3.2톤)이며, 그 중에 동력이 314척 1,037톤이며 무동력이 7척 3.85톤이다.

어선세력은 정부의 지속적인 감척사업과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어선세력 현황그래프와 <표4-2>에 나타난 것처럼 2004년 남해2리의 경우 84척의 어선이 있었으나, 현재 14척이 감소하여 70척의 어선이 남아있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어선이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어선이 감소한 곳은 현남면으로 2004년 169척에서 2008년 말 현재 135척으로 34척의 어선이 감소하였



양양군 어선 척수

고, 현북면에서는 58척에서 48척으로 10척이 손양면에서는 57척에서 54척으로 강현면에서는 95척에서 84척으로 감소하였다. 전체로 보면 2004년 379척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말 321척으로 58척의 어선이 감소하였다.

〈표4-2〉 양양군 어선 세력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총 계	379	1158.21	381	1187.07	361	1167.39	348	1120.81	321	1040.90	
현 남 면	소 계	169	564.36	169	587.50	154	579.15	148	574.83	135	522.95
	남애1	15	33.78	14	32.74	13	30.41	11	25.34	11	27.68
	남애2	84	371.30	88	391.18	79	376.63	77	374.26	70	339.17
	광진	9	3.77	10	4.03	9	3.77	9	4.34	8	3.75
	인구	33	67.39	31	66.59	30	75.53	27	75.31	25	66.31
	동산	28	88.14	26	92.96	23	92.81	24	95.58	21	86.04
현 북 면	소 계	58	247.27	60	244.53	57	225.97	51	198.22	48	194.06
	기사문	52	240.26	53	236.97	51	218.96	48	194.82	45	189.77
	하광정	6	7.01	7	7.56	6	7.01	3	3.40	3	4.29
손 양 면	소 계	57	159.86	58	170.37	56	174.01	58	166.35	54	148.65
	동호	4	18.56	5	22.92	4	22.21	4	22.21	3	20.01
	수산	36	107.10	36	113.25	36	117.15	37	108.81	35	93.96
	오산	17	34.20	17	34.20	16	34.65	17	35.33	16	34.68
강 현 면	소 계	95	186.72	94	184.67	94	188.26	91	181.41	84	175.24
	낙산	32	63.40	33	64.41	38	75.32	34	70.51	31	71.80
	전진2	24	26.56	23	24.36	22	24.64	23	26.84	20	22.59
	물치	39	96.76	38	95.90	34	88.30	34	84.06	33	80.85

#### 4. 어업기반 시설 현황

영동 북부에 위치하고 동쪽은 전체가 바다에 접하고 국도 7호선과 접하고 있어 교통이 좋은 편이고 어항 기본 시설도 대체로 양호한 실정이다.

해안선은 동해안 특성의 단조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약 44.54km에 걸쳐 총 12개의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어항이 위치하고 있다.

국가어항은 〈표4-3〉과 같이 수산항과 남애항으로 2개항이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고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관할의 지방어항은 동산항과 물치항으로 2개

항이며, 양양군 관할의 어촌정주어항은 후진항, 낙산항, 오산항, 기사문항, 인구항으로 5개 어항이 있고, 소규모 어항으로 동호항, 하광정항, 광진항의 3개항이 있다.

〈표4-3〉 인근항과의 거리 및 위치 (수산항 기준)

항 명	해상 거리(km)	위 치	항 종	관할 부서
수 산 항	0	손남면 오산리	국가어항	국토해양부
남 애 항	18.0	현남면 남애리	국가어항	국토해양부
동 산 항	13.0	강현면 동산리	지방어항	강원도
물 치 항	11.0	강현면 물치리	지방어항	강원도
후 진 항	8.0	강현면 전진2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낙 산 항	6.5	강현면 전진1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오 산 항	2.0	손양면 오산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인 구 항	14.5	현남면 인구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기사문항	10.2	현북면 기사문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동 호 항	2.5	손양면 동호리	소규모어항	양양군
하광정항	9.8	현북면 하광정리	소규모어항	양양군
광 진 항	16.5	현남면 광진리	소규모어항	양양군

또한 위관시설로는 남애항에 3개동 동산항에 1개동 기사문항에 3개동 물치항에 1개동 총 8개동 2,276.05㎡가 마련되어 있으며 남해항에 1,000D/M 규모의 급유시설이 있다.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인구항, 기사문항, 물치항에 어업인 복지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남애항에는 어업정보센터를 두어 어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4-4〉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단위 : m, 백만원)

항 별	시설명	총계획		2008년까지 실적		잔 량		개발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양양군	계	5,153	52,186	3,523	34,090	1,630	18,096	68.40%
	방파제	1,930	38,611	1,292	24,478	638	14,133	-
	방사제	1,353	6,566	966	4,424	387	2,142	-
	물양장	815	2,789	285	1,315	530	1,474	-
	선양장	-	-	-	-	-	-	-
	호 안	1,055	4,220	980	3,873	75	347	-
	준 설	-	-	-	-	-	-	-

항 별	시설명	총계획		2008년까지 실적		잔 량		개발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후진항	계	699	5,870	699	5,870	-	-	100%
	방파제	289	4,121	289	4,121	-	-	-
	방사제	165	741	165	741	-	-	-
	물양장	30	128	30	128	-	-	-
	선양장	-	-	-	-	-	-	-
	호 안	215	880	215	880	-	-	-
	준 설	-	-	-	-	-	-	-
낙산항	계	745	6,143	745	6,143	-	-	100%
	방파제	189	3,749	189	3,749	-	-	-
	방사제	290	1,136	290	1,136	-	-	-
	물양장	60	257	60	257	-	-	-
	선양장	-	-	-	-	-	-	-
	호 안	206	1,001	206	1,001	-	-	-
	준 설	-	-	-	-	-	-	-
오산항	계	505	7,360	281	6,046	224	1,314	55.60%
	방파제	270	6,116	253	5,916	17	200	-
	방사제	130	758	-	-	130	758	-
	물양장	30	139	28	130	2	9	-
	선양장	-	-	-	-	-	-	-
	호 안	75	347	-	-	75	347	-
	준 설	-	-	-	-	-	-	-
동호항	계	572	7,290	100	956	472	6,334	17.50%
	방파제	312	6,240	100	956	212	5,284	-
	방사제	90	540	-	-	90	540	-
	물양장	170	510	-	-	170	510	-
	선양장	-	-	-	-	-	-	-
	호 안	-	-	-	-	-	-	-
	준 설	-	-	-	-	-	-	-
하광정항	계	869	8,899	27	200	842	8,699	3.10%
	방파제	360	7,000	-	-	360	7,000	-
	방사제	124	744	-	-	124	744	-
	물양장	385	1,155	27	200	358	955	-
	선양장	-	-	-	-	-	-	-
	호 안	-	-	-	-	-	-	-
	준 설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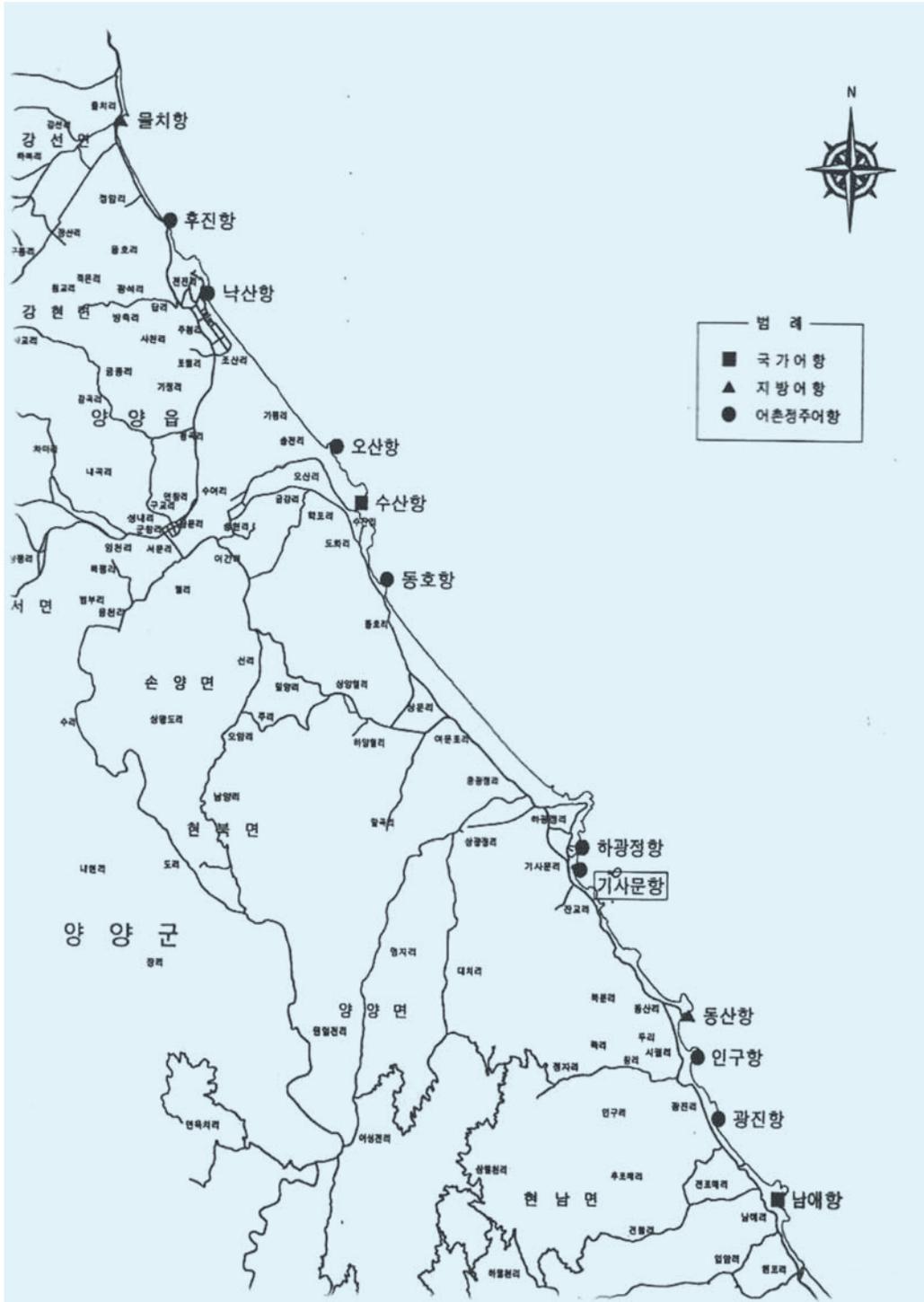
항 별	시설명	총계획		2008년까지 실적		잔 량		개발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기사문항	계	857	7,402	857	7,402	-	-	100%
	방파제	260	5,240	260	5,240	-	-	-
	방사제	180	930	180	930	-	-	-
	물양장	90	386	90	386	-	-	-
	선양장	-	-	-	-	-	-	-
	호 안	327	846	327	846	-	-	-
	준 설	-	-	-	-	-	-	-
인구항	계	756	8,622	707	6,973	49	1,649	93.50%
	방파제	250	6,145	201	4,496	49	1,649	-
	방사제	224	1,117	224	1,117	-	-	-
	물양장	50	214	50	214	-	-	-
	선양장	-	-	-	-	-	-	-
	호 안	232	1,146	232	1,146	-	-	-
	준 설	-	-	-	-	-	-	-
광진항	계	150	600	107	500	43	100	71.30%
	방파제	-	-	-	-	-	-	-
	방사제	150	600	107	500	43	100	-
	물양장	-	-	-	-	-	-	-
	선양장	-	-	-	-	-	-	-
	호 안	-	-	-	-	-	-	-
	준 설	-	-	-	-	-	-	-

자료 : 2008.12.31. 현재

어항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어촌정주어항의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등의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을 <표4-4>에 나타내었다.

### 5. 어항의 위치 및 특징

어항에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8개소와 소규모 어항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는데 총 12개의 어항이 있다. 연안어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양양군 12개 어항 위치

## 1) 수산항

읍내 터미널에서 시내버스가 1시간여 간격으로 운행하며 7번국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용한 것이 수산항의 특징이며 1종 어항(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항구 내에 모텔과 횃집 민박시설이 있는 양양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항이다.

수산리의 역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마을에 먼저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 남평 문씨가 7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2백년은 넘는 듯하다. 앞에는 동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 수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수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이름의 내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설악산의 줄기와 동해의 남대천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수산항은 양양국제공항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며 세력권 어선의 어업 근거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에 착수한 후 1996년 수치모형실험(항내 매몰방지 대책)을 실시하면서 항으로 더욱 발전을 거듭했다.



수산항의 모습

특히 수산항은 길게 뻗은 방파제가 있어 주말이 되면 각지에서 온 낚시꾼들로 붐빈다. 방파제 낚시로는 우럭과 노래미 등이 주로 잡히며 낚은 고기를 즉석에서 회로 썰어 먹는 맛도 수산리에서 만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또한 선사문화를 간직한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둘러 볼 수 있으며 바다의 축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남대천 연어축제에 직접 참여해 볼 수도 있다.

일제시대에는 정어리가 많이 잡혀 당시의 주 소득원이었다고 한다. 마을 근처에 정어리 공장 세 곳이 있어 수요·공급이 맞았기 때문이다. 이 정어리 공장은 기름을 짜서 모두 일본으로 보내고 나머지 무거리는 비료로 사용했다. 정어리를 잡는 배는 12척이 있었다. 정어리 공장이 없어진 지는 50년이 되었고 약 30년간 공장이 운영되었다. 6·25 한국전쟁 이후는 오징어가 많이 잡혔고 풍선(목선)으로 잡았다. 이 풍경이 모두 없어진 지는 20년이 된다.

현재 수산항에는 국제규모의 요트 선착장이 마련되어있으며 제9회, 제10회 해양경찰 청장배 전국 요트 대회 등 전국 단위 요트 대회를 개최하는 레저·레포츠 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 2) 남애항

양양은 오를 양(襄), 해 양(陽)으로 한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해가 떠오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해돋이 고장이다. 남애는 매화가 결실을 맺은 후 떨어지는 모양이라 하여 ‘낙매’라고 불려오다가 남쪽 바다라는 뜻의 ‘남애’로 개칭되었다.



남애항의 모습

산과 바다가 함께 인접한 곳에 위치한 항으로 수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담당하는 남애항은 강원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로, 1979년 기본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1996년 어항 시설 정비계획을 진행한 양양군의 1종 국가어항이다.

남애항은 남애2리에 자리잡고 있으나 항구를 중심으로 남애1·4리 4개의 포구 마을이 길게 늘어서 있는 항으로 새벽에 들어오는 고깃배에서 펄떡 뛰어오르는 생선들은 바다의 신선함을 느끼게 해준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민들의 손끝에서 잡아 올린 가자미와 넙치는 남애항 사람들의 부지런한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남애항은 해수욕장, 방파제와 등대, 호수, 바위섬, 고깃배와 횃집 등 바다의 정취를 한꺼번에 모아 놓은 집약형 바닷가이다.

특히 동해시의 추암(湫岩) 일출과 함께 동해안 일출의 최고 명소로 꼽히며, 특히 그림같은 해변과 아담한 항구를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돋이가 장관이다.

항구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에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이 돋보인다. 이 두 개의 섬에는 각각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가 서 있어 마치 쌍둥이 형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하고, 섬마다 각기 한 그루의 커다란 해송이 가지를 펴고 나무 그림자를 드리워 운치를 더한다.

양양군의 남쪽 끝머리에 향아리처럼 움푹 팬 모습으로 자리잡고 앉아 전체적으로 아담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영화「고래사냥」의 마지막 장면이 촬영된 장소로도 유명하며, 바로 인근에 남해해수욕장, 남해1·3리 해수욕장, 광진해수욕장이 있고, 북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15분 정도 달리면 주문진이 나온다. 주요 해산물로는 전복·미역·가리비·멸치·넙치 등이 있다.

### 3) 물치항

물치항은 2종 어항(지방어항)으로 양양군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초시와 경계지역의 항구로 항구 내의 현대식 횃집상가단지가 형성되고 주변마을에도 규모가 큰 모텔 등이 들어서 분위기가 좋



물치항의 모습

다. 어촌계 활어센터 안에는 사계절 관광객을 모시기에 적합하게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층과 2층은 지역 어촌계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는 횃집단지를 형성하였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청결하고 실내에 화장실을 갖추어 놓고 호객행위는 하지 않는다. 물치항은 횃집마다 손님들의 좌석을 해안가 창문 쪽으로 배치 실내에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의 횃집들은 모두가 자체적으로 배를 갖고 있는 어촌계 가족들로서 중간상을 거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물치리’ 내에는 ‘떡말’ (떡촌이라 해서 떡말), ‘떡정 거리’ (옛날 떡을 많이 해서 팔았다고 떡정 거리), ‘우정거리’ (우시장 서는 곳이라서 우정거리), ‘진고개’ (진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서)라고 불리는 여러 작은 마을들이 모여서 한 개 리(里)를 이룬 마을이다.

‘물치’ 라는 마을 이름은 마을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물가에 발이 있다 해서 물치라 하기도 하고 남쪽 북쪽 한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강이 내린다고 하여 물치라 하기도 한다. 물치는 옛부터 강릉 위의 이북에서 원산 이하로는 동대문 밖의 제일이라 할 정도로 시장이 크게 선 마을이다. 장이 섰던 시기는 일제시대로 1937년 철로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어 속초가 번영하면서 반대로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다가 1985년경에 물치장이

없어졌다. 우시장의 경우는 1950년대 초반에 없어졌다. 속초가 생긴 이후로 마을이 쇠퇴해 과거에 비해 가구가 많이 줄고, 시장도 속초에 나가 보며, 자녀의 진학도 속초에 가장 많이 보내는 실정이다.

#### 4) 동산항

동산항은 2종 항구(지방어항)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지 않고 주민들도 외지인에 대해 친절하며 주위의 다른 항구보다 한적하여 조용한 피서·배낚시·바다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동산항의 모습

찾는다. 특히 이곳과 주변의 해수욕장들은 항포구 안쪽이나 내륙 쪽으로 오목하게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어 파도가 높지 않고 수심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동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마을 모양이 장구 모양이라는 데서 나왔다는 설과 구리 동(銅)자를 쓰는데서 나왔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동산리는 행정구역상 5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2반을 합쳐 '말쪽'이라 부르고 3·4·5반은 '새쪽'이라 부른다. 또 1반은 따로 '새새끼불'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 마을의 주를 이루는 성씨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지씨와 조씨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5) 후진항

후진항은 7번국도변에 위치하며 낙산사가 있는 오봉산을 경계로 북쪽에 위치하는 항구로 설악 해수욕장으로 더 알려진 곳이며 최근에는 작은 어선들 몇 척 정도 뿐이나 조선 숙종 35년(1709년) 이해조(李海朝) 양양부사가 현산삼십경(峴山



후진항의 모습

三十景)을 읊은 시문을 보면 “낙산사에 들러 일출을 보고는 꼭 후진에 와서 고기구경을 한다.”라 하고 “고기 실은 배가 후진에 모여며, 고기 잡는 그물이 구름같이 쌓인다 하였 고, 또한 한자 남짓한 고기는 거두지 않고 놓아 준다.”라 읊었으니 지금 보다는 꽤 큰 어항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6) 낙산항

낙산항은 소규모 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래 명칭은 전진항이었으나 2008년 3월부터 낙산항으로 바뀌었다. 낙산사 의 상대 아래의 바다 쪽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낙산해수욕장과 백사장이 연결된다.



낙산항의 모습

해안가로 바위들이 많고 낚싯대를 빌려(유료)주는 곳도 있어서 즉석에서 바다낚시도 할 수 있는 재미를 준다.

전진1리는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던 마을로 옛날엔 앞 나루라고 불리던 곳이다. 전진1리는 또한 낙산해수욕장을 끼고 있어 피서철 해수욕장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낙산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절이다. 세조가 이 절에서 피부병을 고친 후 낙산사를 중심으로 바다를 포함해 사방 10리를 낙산사의 땅으로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로 주민들은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도 낙산사에 일정량을 바치고 생활하였으나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수산조합을 만들어 낙산사의 바다에 대한 권리를 없애고 땅도 많은 부분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도 도로는 대부분 낙산사 땅이어서 주민들은 세를 내고 있다.

## 7) 오산항

항구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며 가을철 바다연어가 많이 잡히는 항구 중 한 곳이며 남쪽해변에 쓸비치 리조트·호텔이 있고, 해변을 따라 군 휴양소 및 문화마을·오산 선사유적박물관이 있다. 또한 수산항과 동호리 해수욕장까지 해변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오산항은 6만 5,577㎡ 면적으로 20척 40여 명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돼 2008년까지 253m의 방파제 축조와 28m의 물양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 8) 기사문항

기사문항은 하조대 남쪽의 항구로서, 항구는 안기사문항과 밖기사문항으로 구분되며 안기사문항은 군사지역이므로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구는 밖 기사문항을 말한다.



기사문항의 모습

이 항구는 비교적 큰편에 속하나 소규모 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항구 남쪽편 7번국도변에 38° 선 휴게소가 있고 휴게소 뒤편 해안기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개장한다. 기사문 마을 안쪽의 항구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의 풍경을 볼 수 있으며, 갯 잡아올린 수산물들은 물론 어민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항에는 수협 직매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 횃집도 많이 형성되어있다.

기사문항의 자랑거리는 단연 ‘명사(鳴沙)’를 꼽는다. 명사는 모래사장을 걸으면 ‘뽕드득’ 하고 모래에서 소리가 난다해서 붙여진 것으로 유난히 모래가 고와 눈을 밟을 때 나는 소리를 백사장에서 즐길 수 있다.

### 9) 인구항

인구항은 항포구에 속하며 마을은 동산항 주변보다 크나 항구는 동산항 보다 작다. 항구 주변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항포구 내를 순환하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항구 내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구항의 모습

동산항과 해안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인구항 북쪽으로 동산 해수욕장, 죽도 해수욕장이 있고 남쪽으로는 광진리 해수욕장이 이어져 있다.

인구항은 다이빙리조트가 있어 스킨스쿠버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운이 좋으면 간혹 멸치떼가 몰려들어 보기 힘든 진풍경을 접할 수도 있다.

과거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접해 사계절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죽도봉에 오르는 코스는 인구항만이 갖고 있는 볼거리다. 띄엄띄엄 놓인 벤치에 등을 기대 잠깐씩 쉬어가며 좁은 오솔길을 따라 죽도정에 닿으면 동해안 경관을 관망하기에 딱이다.

## 6. 양식 사업 현황 및 증·양식업 등록 수

2008년 12월 31일 현재 마을어업이 13건 1,490ha, 협동양식이 5건 428ha, 정치망어업이 28건 519.5ha, 양식어업이 18건 168.9ha이다. 양식어업 중에서는 가두리 양식이 1건 1ha, 패류양식이 5건 76.5ha, 복합양식이 12건 91.4ha이다. 양식어업권 현황은 <표 4-5>에 표시하였다.

또한 해상종묘생산이 8건 32ha이며, 연안허가어업이 462건(자망 246, 복합 130, 통발 42, 양조망 5, 선인망 2, 이동성구획 37)이며 신고어업이 65건, 해수양식어업이 2건 273m<sup>2</sup>, 육상종묘생산이 3건 2,324m<sup>2</sup>, 내수면 양식이 1건 1,092m<sup>2</sup>, 재첩허가가 39건이다.

양식 사업은 복합양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로 양식하는 어종은 가리비와 우렁챙이로 양양군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의 90%정도를 차지한다. 그 외 다른 품종의 양식은 현남면 인구어촌계에서 가두리 양식을 통한 어류의 양식을 하고 있으며 손양면 오산리에서 다시마와 전복을 양식하고 있다. 2008년 말까지 어촌계를 중심으로 3곳에서 가리비양식을 하였으나 집단폐사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양식 사업을 포기하였다.

## 7.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후계자

양양군에서는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유능한 수산업경영인력을 육성하는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어선어업과 증·양식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87명을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총 21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어선어업과 증·양식업에 종사하는 17가구를 전업어가로 선정하여 총 9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다.

수산업 경영인 현황은 <표4-5>에, 전업 어가 현황은 <표4-6>에 나타내었다.

<표4-5> 수산업경영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수산업경영인	87	80	6	1

<표4-6> 전업어가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계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전업어가	17	15	2	-

## 8. 종묘 방류사업 현황

어족 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가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어족자원을 증가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종묘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방류 어종 및 수량은 <표4-7>과 같으며, 2004년 넙치, 북방대합, 전복, 해삼을 방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5년과 2006년에는 넙치, 전복, 해삼, 재첩을 방류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뚝지, 넙치, 볼락, 조피볼락, 강도다리, 개량조개, 북방대합, 전복, 해삼, 재첩을 방류하였으며, 2009년도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규모는 총 11품종, 3억5천만원이며 전복, 해삼, 북방대합, 개량조개 등 8종의 해양어종과 뱀장어, 은어, 메기 등 3종의 향토 내수면어종을 방류하고 있다.

〈표4-7〉 연도별 방류 어종 및 방류 실적

(수량 : 금액 : 원)

품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68,383	209,941	768,000	372,060	1,725,825	560,478	3,214,459	566,000	1,391,974	360,000
뚝지	-	-	-	-	-	-	-	-	25,900	10,000
넙치	253,000	112,148	60,000	30,000	-	-	262,321	97,398	185,568	70,000
볼락	-	-	-	-	-	-	-	-	55,114	30,000
조피볼락	-	-	-	-	-	-	446,475	87,908	141,140	20,000
강도다리	-	-	-	-	-	-	-	-	16,542	20,000
개랑조개	-	-	-	-	-	-	65,450	17,671	110,700	20,000
북방대합	-	-	-	-	-	-	-	-	83,780	20,000
전복	110,000	100,000	508,000	313,460	569,856	472,766	300,114	210,000	104,638	90,000
해삼	99,000	28,793	200,000	28,600	114,280	37,712	219,804	64,623	251,922	60,000
재첩	-	-	-	-	1,041,689	50,000	1,920,295	88,400	416,670	20,000

특히 겨울철 대표어종인 뚝지는 양양 인근 해안에서만 서식하는 향토, 정착성 어종이며,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장 1cm 이상의 뚝지 치어 125,000미를 구입하여 동산리 이남 해역에 방류하였다. 건강한 종묘방류와 어족자원 형성을 위하여 방류해역 어촌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묘질병여부, 활력상태, 규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량종묘만을 방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묘 방류사업을 통한 어족자원원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 9. 수산물 가공 공장 및 주요 가공품 현황

수산물 가공 공장은 오징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조미 가공 공장이 4곳, 홍게살을 이용하여 게맛살을 만드는 업체가 6곳, 명태를 가공하여 코다리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명태 가공 공장이 3곳 그리고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 각종 젓갈류를 가공하는 절임 식품 가공 공장이 2곳 등 총 16개의 가공 공장이 있다.

## 10. 어업인 단체 현황

양양군의 어업인 단체로는 지구별 수협이 1개소(13개 어촌계), 자생단체가 12개소(수산경영인 연합회 외 13), 영어조합법인이 2개소(진보 5인, 오광영어법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양군은 수산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명의 위원(공무원 3, 수협 1, 학계 1, 수산업경영인 2, 어촌계장 2, 어업인 6)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 어촌 체험 마을

### 1) 입지조건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로 선정된 남해항을 중심으로 어촌체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꾸준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2003년 8월 18일 어촌마을 종합 안내센터를 착공하여 2004년 6월 29일 완공함과 동시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완료하였다.

어촌체험 마을로 선정된 남해리는 남해항과 방파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7번국도와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고자하는 외지인들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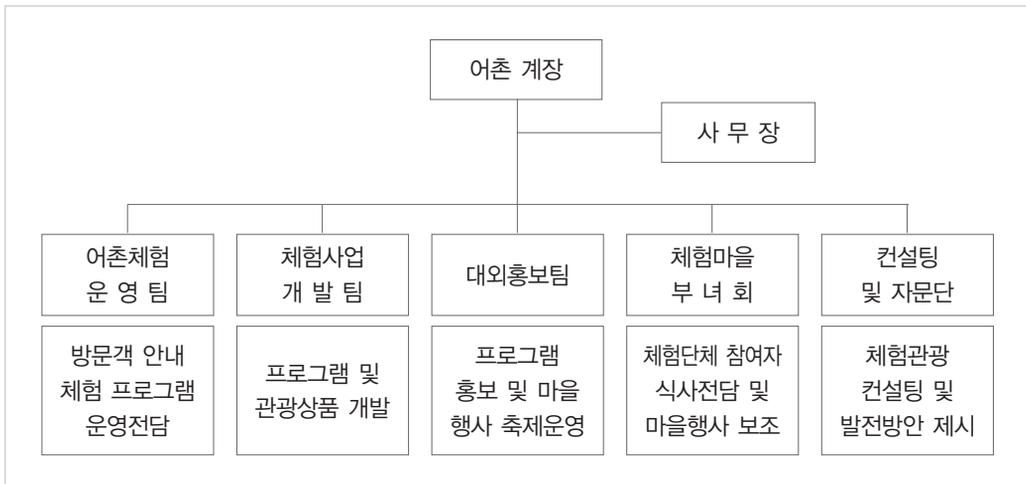
또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해맞이 축제, 그리고 남해2리 해수욕장 및 갯마을 해수욕장, 성황당공원, 영화 고래사냥 촬영장, 방파제 및 항포구 소공원, 해안도로 드라이브코스 등 많은 마을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양양송이축제, 양양연어축제,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번식지, 낙산의상대, 대청봉, 오색령, 하조대, 설악산, 오산리 선사유적지, 수산항 요트 마리나 시설 등이 갖추어져있어 4계절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다.



설팅 및 자문단은 체험 관광 컨설팅 및 체험단의 체험 후기 및 의견들을 반영하여 어촌 체험마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

〈표4-9〉 남해 어촌 체험 마을 조직도



#### 4) 어촌 체험 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

어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자들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다.

2008년도 마을 리더 및 주민의 체험 관광 관련 교육 이수 내용은 〈표4-10〉에, 남해 어촌 마을 컨설팅 및 자문단은 〈표4-11〉에 표시하였다.

〈표4-10〉 마을리더 및 주민의 체험 관광 관련 교육 이수 내역(2008년)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이수인원	교육일시(2008년)
어촌 관광 리더 가이드과정	국립수산과학원	1명(어촌계장)	3. 5.
어촌 관광 리더 가이드과정	국립수산과학원	1명(사무장)	3. 7.
북한 농수산업 실태 및 현황교육	환동해출장소	1명(사무장)	4.25.
일본 북해도 체험 마을 견학	환동해출장소	1명(사무장)	5.11.~5.15.
어촌체험 마을 사업 활성화 워크숍	농림수산식품부	1명(사무장)	6.18.
어촌계장 협의회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1명(사무장)	6.27.

〈표4-10〉 마을리더 및 주민의 체험 관광 관련 교육 이수 내역(2008년)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이수인원	교육일시(2008년)
춘천내수면연구소 및 체험마을 견학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2명(어촌계장, 사무장)	6.30.
일본 동경 일대 체험 마을 견학	농림수산식품부	1명(어촌계장)	8.25.~8.29.
제주도 견학	환동해출장소	1명(사무장)	9.19.~9.21.

〈표4-11〉 남해 어촌마을 컨설팅 및 자문단

소속	성명	전문분야	활동기간	도움내용 등
환동해정책연구소	박영철	해양수산연구	2008. 5.~11.	체험 마을 컨설팅 및 지도
강원도립대학	김진동	관광	2008. 9.	남해 마을 발전방안제시
강릉원주대학교	박흥기	해양자원육성	2008. 7.~ 9.	자매 결연을 통한 어촌 체험 공동 학습 운영
양양군 해양수산과	김종기	해양수산	2008. 1.~12.	체험 마을 컨설팅 및 지도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전민지	해양수산	2008. 1.~12.	체험 마을 컨설팅 및 지도

### 5) 남해 어촌체험마을 실적

남해 어촌체험마을은 2005년부터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표4-12〉에서와 같이 대표적으로 2005년 동부건설 물류팀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008년에는 강릉대학교 해양생물교육센터, KT&G 원주제조창,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경기도 안성교육청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해안 대표적인 어촌체험마을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해 갯마을해수욕장이 2008년 바다여행 추천 전국 해수욕장 BEST10에 지정되고, 지역의 교육연수기관 및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어촌체험 공동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체험객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종축제장 내에 남해 어촌체험마을 홍보 부스 설치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어촌 체험 마을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표4-12〉 자매 결연 교류 실적

단체(업체명)	교류 일자	교 류 내 용
한국 어촌어항 협의회	2008.1.12.~13.	수도권 체험객 80명 대상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추진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2008. 6.11.	강릉원주대학교 학부생 45명 어촌체험
	2008. 7.21.	수원교육청 소속 초·중등학생 110명 어촌체험
	2008. 8. 2.	경기도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 45명 어촌체험
	2008. 8. 6.	성남 교육청 소속 초·중등학생 200명 어촌체험
KT&G원주제조창	2008. 8. 3.~6.	직원 및 가족 하계휴양소 설치
	2008. 8. 4.	어촌체험 행사
	2008. 8. 5.	갯마을 해변 가요축제
서울대학교 해양 연구소	2008. 8.13.	어촌체험 및 식사
	2008. 9.30.	어촌계에 디지털 카메라 증정
경기도 안성교육청	2008. 8.12.	초·중등학생 200명 어촌체험

## 12. 회 센터

양양군에는 물치항, 후진항, 낙산항, 하광정항, 남애항에 각각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5개의 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횃집이 등록된 물치항의 경우, 3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마련해 놓고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회를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어항에 위치한 회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마련하여 회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 13. 어촌 종합 개발 사업 성공사례

물치어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은 19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물치항의 주변을 둘러싼 난전에 회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생선 잔여물과 냄새로 인해 비위생적이었으며, 또한 매우 복잡한 곳이었다. 그러나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을 통해 활어회 센터를 조성하면서 물치 어촌은 어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계원들 간의 협동심과 조직력 강화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치어촌의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은 1998년에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여 36개의 횃집을 조성하였으며, 횃집센터는 3층으로 건립되었으며, 1층에는 기계실, 창고, 오수정화조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었고, 2층과 3층에 현재 총 35개 횃집이 운영 중에 있다. 물치항은 7번국도변에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트인 조망과 횃집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활어회 센터를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에는 물치항과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어회 센터의 각 점포들은 어선어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직접 잡은 수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어항이나 근처 바다경관이 좋은 곳에서 회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는 소포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판매 전략을 쓰고 있다.

#### 14. 대표 회귀 어종 연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회귀해 오는 연어류의 대부분은 연어(*Oncorhynchus keta*, Chum salmon)이며, 분류학적으로 청어목(Clupeida) 연어과(Salmonidae) 연어속(*Oncorhynchus ssp.*)의 냉수성 고급어종으로 수산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어종 중의 하나이다. 국내로 회귀하는 연어는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에서 포획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양양 남대천, 강릉 연곡천, 고성 북천, 명파천 등에서 포획되고 있지만, 특히 양양 남대천은 물이 맑고, 양정이 길어 수량이 풍부하며, 수온이 낮아 연어가 회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어 포획량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남대천으로 회유하는 연어는 전국 연어 회귀율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회귀율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채란 부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포획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07년도 포획량은 1906년도 포획량보다 45% 이상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연어는 연어가 살고 있는 지역 중 가장 남쪽에 위치

하고 있어 생태학적 또는 생리학적 연구를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종 중의 하나이다. 연어의 회유는 북해도 수역을 거쳐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2~5년간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모천회귀 본능을 지닌 가장 대표적인 회귀어종이다. 뿐만 아니라, 연어는 일생에 한번만 산란하고 생을 마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잘 관리된 연어자원은 교육적, 심미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양양군의 홍보 및 관광 콘텐츠사업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수온상승 및 인간의 활동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연어와 산천어의 서식지 및 산란장의 파괴로 인해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연어의 경우, 연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치어를 부화시켜 방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1984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내수성어류연구센터가 건립되면서 1985년부터 남대천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으며, 연어 및 산천어를 포함한 냉수성 고급어종에 대한 자원증강과 자원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방류하고 있는 연어의 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연어에 대한 체계적인 생리, 생태학적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류를 위한 어린 치어의 수를 늘리는 연구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연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한정된 연구 인력으로 인한 과학적 연구의 미흡 등 복합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인 연어의 경우 현재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수온상승은 우리나라 연어서식지인 양양연근해 역시 일어나고 있어 연어의 회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연어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연어의 이름

연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연어과 어류의 일반명(Salmon)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연어 가족 중 우리나라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오는 *Oncorhynchus Keta*의 표준명이다. 일생을 통해 강과 바다에서 생활하며 몇 번이 형태 변화를 거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이름은 다양하지 않다. 반면 구미 각국에선 성장 단계마다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다.

갓 태어난 후 난황(卵黃)을 갖고 있는 시기는 ‘alevin(앨리번)’ 또는 ‘fry(프라이)’, 그 후 난황을 흡수하고 체측에 막대모양의 무늬(parr)가 나타나면 ‘parr(파)’라고 부른다. 그 후 무늬가 없어지고 몸이 은색을 띠면서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를 “smolt(스몰트)”라 부르게 된다. 바다에 내려간 후에도 나이에 따라 smelt, sprod, mort, for-tail, half-fish, salmon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속명인 Oncorhynchus는 그리스어인 Onkos(갈고리모양)와 rhynchos(코)의 합성어로 ‘갈고리모양의 코를 가진 물고기’란 뜻이다. 이것은 산란기에 이른 수컷의 코가 휘어져 튀어나오는 형태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에서는 연어를 chum salmon(침연어) 또는 dog salmon(개연어)로 부르는데 chum이란 ‘단짠’, ‘사이좋은 친구’를 뜻하는 말로, 오래 전부터 인간과 연어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dog salmon이란 연어가 연어과 어류 중 맛이 없는 편으로 개박에 먹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예부터 연어가 중요한 식량이었던 아이누족들은 연어를 ‘진짜식량(시삐)’, ‘진짜고기(시재뿌)’, ‘신(?)의 고기(카무이째뿌)’, ‘연어신(시삐카무이)’ 등의 의미로 매우 소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일본에선 사케(サケ)로 부르며 어조에 따라 시로사케(ツロサケ), 아끼사케(アキサケ)등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일본명인 사케(サケ)는 열(裂)이란 한자어의 뜻을 가지며(サケる : 찢어지다, 갈라지다의 뜻), 이것은 요리할 때 근육이 곁에 따라 갈라지기 쉬운 특징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명은 대마합어(大麻合魚) 등이다.

## 2) 연어의 특징

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연어는 방추형으로 채색이 등은 청록색, 배는 은백색으로 전형적인 표층 회유성 어종의 형태와 빛깔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나 기록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어는 산란을 위하여 강이나 하천으로 돌아오는 성어(成魚)로 몸빛이 검게 변하면서 체측에 붉은색, 초록색, 검은색의 구름무늬가 나타나 있고[혼인색(婚姻色)], 수컷의 주둥이는 돌출하면서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연어는 1회 산란 후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의 크기는 대개 40~90cm(우리나라 연어)이다. 그러나 연어과 어류 중에는 왕연어(King salmon)와 같이 체중이 25kg급이 흔한 종류도 있다.

산란기에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은백색이 없어지고 몸 전체가 거무스름해지며 검정·노랑·분홍·보라가 섞인 불규칙한 줄무늬가 몸옆에 나타난다. 성숙함에 따라서 머리가 길어지고 특히 수컷의 주둥이 끝은 아래쪽으로, 아래턱은 위쪽으로 굽고 양턱의 이가 강대해진다. 성숙한 알은 지름이 7~8mm, 빛깔은 붉은빛이 도는 오렌지색이고, 한 배에 약 3,000개의 알을 품고 강의 중류역에 산란한다.

### 3) 냉수성어류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의 전문연구소로서 연어의 고향인 남대천에 위치하며, 1984년 양양어류종묘배양장으로 시작하여 2009년 5월에 냉수성어류연구센터로 개칭되었으며, 연어자원 증강을 위한 연어치어 생산 방류를 비롯하여 무지개송어, 산천어, 시마연어 및 열목어를 대상으로 종묘생산과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북태평양에서 살다가 산란 시기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 “모천회귀성”인 연어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미연어 포획과 채란하는 과정을 공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연어가 방류되는 3~4월에는 방류체험을 통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시 연어 전시관 및 사육시설을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남대천 방류 사업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회귀하는 곳으로 남대천을 “연어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이 회귀된 것은 아니고 1984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연어 인공종묘생산 및 방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회귀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방류량 역시 많아지게 된 것이다. 남대천은 물이 맑고, 양정(약 60km)이 길어 수량이 풍부하며, 수온이 낮아 연어가 회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여건을 지니고 있어 방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연어의 회귀는 많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냉수성어류연구센터에서 방류하는 방법에는 비닐봉지식, 수문개방식, 차량수송에 따른 호스 방류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남대천에는 방류량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사육하고 있던 사육수조의 배출부 수문을 열면 어린연어들이 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수문개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류의 홍보를 위해 비닐봉지에 수백 마리씩을 담아 산소를 공급한 후 고무줄로 묶어 차량으로 수송하여 남대천 둔치에서 학생, 지역주민 등이 직접 한 봉지씩 방류를 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또 한 다른 지역 방류시에는 어린연어를 활어수송 차량에 담아 산소를 공급하면서 수송하여 현지에서 비닐호스로 연결하여 차량 내에 있는 어린연어를 호스로 뽑아내어 방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남대천의 연어 포획, 채란 및 방류, 종묘 생산 과정은 다음 그림에 표시하였다.



양양 남대천의 연어 포획, 채란 및 방류, 종묘 생산 과정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간 연어의 방류량 및 어획실적은 <표4-13>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국의 연도별 연어 포획량은 <표4-14>에 표시하였다.

<표4-13> 연간 연어의 방류량 및 어획실적

(단위 : 1,000마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방류량	19,000	5,320	10,450	14,735	12,930	11,250	7,350
어획량	17,000	44,000	60,000	36,000	29,000	23,000	45,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표4-14> 전국의 연도별 연어 포획량

연도	포획량 (마리)		
	전국	양양	삼척
2003	14,750	9,162	3,006
2004	12,925	8,299	3,350
2005	13,275	9,902	2,660

집필 : 진덕희



## V. 광업

### 1. 광종별 광구 현황

1982년만 하더라도 <표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76개의 광구가 등록되어 있었다. 광종별로는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70개 광구가 금속광구였으며 나머지는 비금속광구 4개와 석탄광구 2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이 되면서 광구 수는 198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개로 줄어들었으며, 이후에도 감소세가 계속되어 2007년 현재 등록된 광구 수는 겨우 10개에 불과하다. 이들 10개 광구를 광종별로 보면 금속광과 비금속광이 각각 5개로서 1982년 이후 금속광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6-1> 광종별 광구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합 계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1982	76	9	67	70	7	63	4	2	2	2	0	2
1985	32	11	21	28	10	18	3	1	2	1	0	1
1990	36	14	22	25	13	12	10	1	9	1	0	1
1991	37	14	23	23	13	10	13	1	12	1	0	1
1992	37	15	22	23	13	10	13	2	11	1	0	1
1993	30	15	15	18	13	5	12	2	10	0	0	0
1994	29	3	27	18	0	18	11	2	9	0	0	0
1995	28	2	26	18	0	18	10	2	8	0	0	0
1996	25	3	22	18	0	18	7	3	4	0	0	0
1997	23	2	21	17	0	17	6	2	4	0	0	0
1998	20	3	17	15	0	15	5	3	2	0	0	0
1999	16	3	13	10	0	10	6	3	3	0	0	0
2000	16	3	13	10	0	10	6	3	3	0	0	0

연도	합계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2001	15	3	12	10	0	10	5	3	2	0	0	0
2002	12	2	10	9	0	0	3	2	1	0	0	0
2003	17	3	14	13	0	13	4	3	1	0	0	0
2004	17	2	15	13	0	13	4	2	2	0	0	0
2005	17	3	14	13	0	13	4	3	1	0	0	0
2006	19	3	16	14	0	14	5	3	2	0	0	0
2007	10	3	7	5	0	5	5	3	2	0	0	0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등

2007년 현재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 가행(稼行) 광구(鑛口)는 3개뿐이며 모두 비금속 광구이다. 1990년대 초까지 13개의 금속광구가 가행되고 있었으나 값싼 외국산 금속광물의 수입과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한 채산성의 악화로 1994년 이후 모두 가행이 중단되었다. 이밖에 석탄광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통계자료상의 생산실적이 전무하여 1960년대에 이미 가행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 2. 광산물 생산실적

현재 생산되는 광물은 규사 뿐으로서 2007년의 생산실적은 43,547톤이다. 규사 이외의 광물로서 과거에는 철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었으나 1995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밖에 중석, 장석, 규석 등의 광물이 일시적으로 소량 생산되기도 하였으나 이것 역시 생산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표6-2〉 광산물 생산실적

(단위 : 톤)

연도	철	규석	규사	중석	장석
1965	285,700	-	-	-	-
1970	320,943	-	-	-	-
1975	291,300	-	-	-	-
1980	347,910	-	12,000	176	-
1985	343,795	-	14,459	-	-

연 도	철	규 석	규 사	중 석	장 석
1990	188,267	-	34,213	-	-
1991	122,338	-	37,263	-	5,565
1992	155,477	-	55,933	-	600
1993	96,572	-	54,351	-	-
1994	32,324	-	54,203	-	-
1995	-	-	65,507	-	-
1996	-	-	74,253	-	-
1997	-	-	74,952	-	-
1998	-	-	63,156	-	-
1999	-	-	56,142	-	-
2000	-	-	62,217	-	-
2001	-	-	61,504	-	-
2002	-	-	67,866	-	-
2003	-	2,700	54,778	-	-
2004	-	-	58,246	-	-
2005	-	-	49,773	-	-
2006	-	-	53,086	-	-
2007	-	-	43,547	-	-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 3. 광업사업체

광업사업체 수는 1962년의 단일 업체에서 1990년에는 5개 업체로 증가하였고, 이후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보이면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반면에 광업 종사자수는 1962년의 월평균 1,239명에서 계속 감소세를 보여 1990년에는 월평균 36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1998년에는 월평균 55명의 최저점을 보였다. 그 후 월평균 종사자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 104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서 2007년에는 그 수가 월평균 84명을 기록하였다.

〈표6-3〉 광업사업체의 추이

(단위 : 개, 명, 백만원)

연도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	고정자산연말액
1962	1	1,239	-	-	-	-
1970	2	971	-	-	-	-
1980	3	840	-	-	-	-
1990	5	366	8,380	8,292	7,010	2,796
1991	7	333	5,680	6,867	4,661	2,240
1992	5	295	6,039	7,117	5,285	2,215
1993	8	287	8,184	8,265	6,950	3,890
1994	7	139	8,395	8,356	7,259	4,286
1995	8	109	8,225	7,917	6,962	3,643
1996	8	111	7,334	7,605	6,063	3,613
1997	8	97	11,370	11,227	9,551	2,369
1998	6	55	5,942	6,010	5,107	1,330
1999	7	62	8,248	8,077	7,000	1,799
2000	7	64	7,302	7,405	5,987	2,159
2001	8	83	10,159	9,893	8,338	1,525
2002	9	103	12,581	12,331	10,624	4,360
2003	7	104	17,609	17,611	14,110	6,171
2004	8	104	16,813	16,503	11,786	5,009
2005	8	95	16,249	15,979	12,779	4,125
2006	6	68	14,626	14,443	12,449	4,391
2007	8	84	19,122	19,524	14,985	7,327

주 : 금액은 경상가격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1990년 이후 2007년에 이르기까지 양양군의 광업 생산액은 8,380백만원에서 19,122백만원으로 2.3배, 출하액은 8,292백만원에서 19,524백만원으로 2.4배, 부가가치는 7,010백만원에서 14,985백만원으로 2.1배, 그리고 고정자산액은 2,796백만원에서 7,327백만원으로 2.6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모두 경상가격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업 생산액과 출하액,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은 〈표6-2〉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철광생산이 급감하여 1995년에는 중단이 된 반면에 규사의 생산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과 규사가격 상승에 의해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고정자산연말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기간 동안에 시설 투자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양양 철광

1980년대까지 국내 최대 철광 생산지로 알려져 있었다. 철광 생산은 매우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서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제153권 강원도 양양(도호부)의 특산물편에 “쇠돌이 부(府)의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철굴산에서 난다.[석철산부서십리철굴산(石鐵産府西十里鐵掘山)]”라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강원도 양양(도호부)의 토산편에도 “철이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밑에서 난다.[철출서선사동봉하(鐵出西禪寺東峯下)]”라고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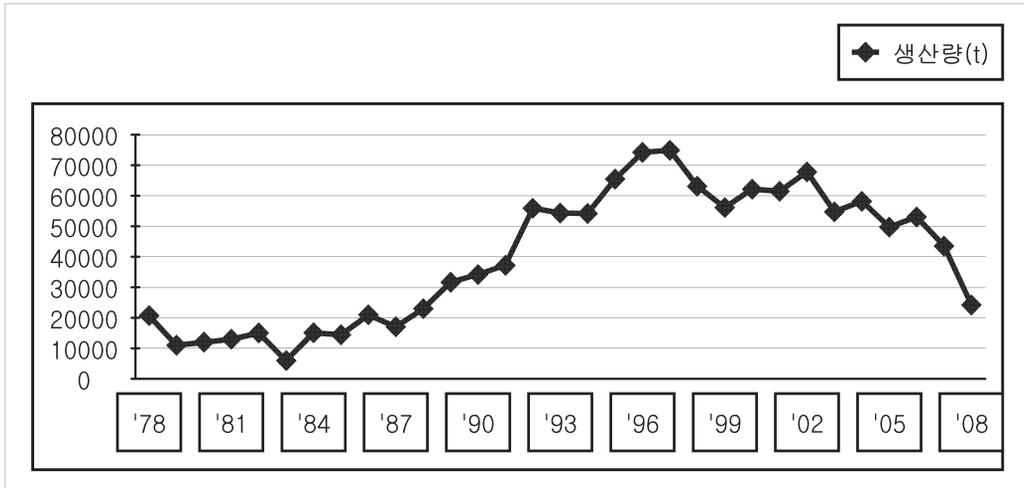
철광은 서면 장승리와 서면 갈천리에 각각 위치한 양양광산과 구룡광산 두 곳에서 생산되었으며 전자는 생산량이나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의 철광산이었다.

지질은 광구 주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편마암류와 변성퇴적암류를 주로 하여 이를 후기에 관입한 섬강암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체(鑛體)는 변성퇴적암류 내에 좁게 발달하고 있으며 지표면에 가까운 상부 광체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광상(鑛床)은 접촉광상으로서 길이는 약 7km이고, 광구면적은 5,534km<sup>2</sup>, 추정매장량은 462.4만 톤이다.

양양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일제는 1933년부터 시험 채광을 하여 오던 중에 이곳에 자철 함유량이 50~80%인 양질의 철광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었음을 발견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1941년부터 본격적인 채광에 착수하여, 매일 평균 210톤 규모의 철광을 속초항을 통해 일본 야하타(八幡) 제철소로 반출하였다.(강원문물 편찬실, 『강원문물(江原文物)』, 大京출판사, 1973, 142쪽)

그러나 8·15광복과 더불어 폐광되었으며, 남북분단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한국동란 이후 행정수복이 되자 국유화되어 1956년부터 다시 가동되었다. 그 후 1955년 말에 설립된 양양철광공사가 경영하다가 1964년에 대한철광회사에 합병되었으나, 1967년

에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가 인수하면서 민영화되었고 1987년에는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의 양양사업소로 이관되었다.



자료: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양양군의 철 생산실적의 추이

1961년에 자력 선광장이 준공되고 1962년에는 대형의 발전기 및 컴프레서가 도입되는 등, 기계설비가 크게 확충되자 생산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철광 생산량은 광복 후 처음으로 생산이 시작된 1956년에는 8,914톤, 그 다음해인 1957년에는 74,842톤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에는 319,06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강원도기획관리실편, 『강원총람(江原總攬)』, 1975, 572쪽) 양양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은 1973년에 포항제철에 납품하기 전까지는 모두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1965년에 양양군의 철광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를 점하는 등, 1960년대에는 주요 외화획득 원이었다.(권혁재, 『한국지리 지방편(韓國地理 地方編)』, 법문사, 1995, 136쪽)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광생산은 1963년 이후에도 1차 국제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3년을 제외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30만톤대 전후의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 특히 1982년에는 362,000톤을 생산하여 피크를 이루었다. 그러나 값싼 외국산 광물의 수입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생산량이 1987년부터 현저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어 1990년에는 188,267톤, 1993년에는 96,572톤, 1994년에 32,324톤으로 급감하고, 결국 1995년에는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그런데 2008년 7월 강원도는 금산개발(주)이 과거에 갱도가 지나지 않아 철광석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양양사업소 작업권 내 210ha에 대해 신청한 채광계획을 광해방지 의무의 충족과 산림조성 지원비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금산개발(주)은 이 지역에 최소 500만톤 이상의 철광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대학교에 조사를 의뢰 중에 있다. 또 2007년 6월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광석의 품위가 49.08%로 질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양광산 선광장 옛터

금산개발(주)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한전산업개발, 대한광업진흥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다가 철광석의 채굴과 더불어 발생하는 폐석은 도로포장 골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채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산개발 정병화 이사와의 담화에 의함)

## 5. 구룡광산

서면 갈천리에 위치한 구룡광산은 광구의 범위가 약 90ha이고 철 함유량이 약 52%인 양질의 자철광산으로서,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1940년대 초에 일제에 의해 채굴이 시작되었으나, 광복 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3년 이후에 채굴이 재개되어 월간 300톤 규모의 철광을 생산하고 있었다.(양양군, 『양주지(襄州誌)』, 1990, 460쪽) 그러나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도로가 좁아 수송이 불편한데다가 석유파동 등의 영향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1970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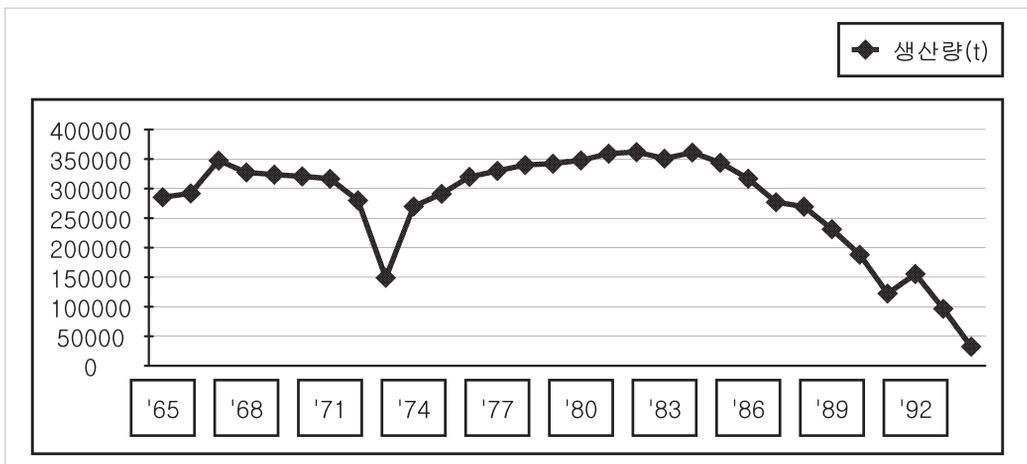
## 6. 규사

현재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물은 규사이다. 규사는 현남면 지리의 7번국도변 좌우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 지역의 규사는 화강암류, 화강편마암류 등 석영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산지의 암석이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 분해되면서 모암에서 떨어져 나온 석영 알갱이가 하천수에 의해 동해안으로 운반,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현남면 지리의 규사생산

현남면 지리의 규사가 언제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규사 광업권 등록서류에 기재된 최초의 광업권자가 일본인이라는 점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생산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며, 광복 후에는 우리 정부 및 민간인들로 수차 광업권자가 바뀌면서 소규모의 생산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7년 12월에 대호광업(주)이 설립되어 기존업체의 규사광업권(제46730호, 제59765호)을 인수함과 동시에 선별기, 건조기, 샌드펌프 등의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증설하고, 1995년 1월에는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대호광업(주)에서 분사한 동호광업(주)이 새로이 광업권(제27755호)을 설정하고 생산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규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양양군의 규사 생산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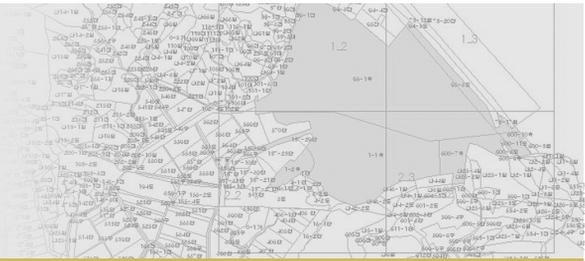
즉, 규사생산추이를 보면 1978년에 20,700톤이었던 연간 규사 생산량은 이후 15,000톤대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으나, 대호광업(주)의 설립 직후인 1988년에는 20,000톤대를 회복하고 1989년부터는 30,000톤대, 1992년부터는 50,000톤대에 진입하였고, 동호광업(주) 설립 직후인 1997년에는 74,952톤을 기록하여 피크를 이루었다. 그 이후 규사생산은 수익성의 변화 등에 의해 감소세로 반전하여 2007년에는 43,547톤까지 감소하였다. 게다가 2008년에는 세계경제의 악화 및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여 생산량이 전년의 55.5%에 불과한 24,168톤으로 급락하였다.

2009년 현재 양양군의 규사 생산업체로는 대호광업(주)과 동호광업(주)의 2개만이 존재하며 각각「금호광산」과 「동호규사」로 등록된 규사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물업계의 조형용 주물사, 유동층 소각로의 유동사, 수돗물 정수장의 여과용 여과사 및 여과사리, 그리고 골프장의 벙커사 등 고부가가치 규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이 좋아 포항제철,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같은 대기업에 납품하기도 하였다.(대호광업 김기정 부장과의 담화에 의함)

집필 : 김건석

## 참고문헌

- 강원도기획관리실편, 『江原總覽』, 1975  
 강원문물편찬실, 『江原文物』, 大京출판사, 1973.  
 고전간행회, 『(新增)東國與地勝覽』 제44권, 東國文化社, 196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제153권, 탐구당, 1970.  
 권혁재, 『韓國地理 地方編』, 법문사, 1995  
 양양군, 『襄州誌』, 1990



## VI. 경제

### 1. 조세제도

#### 1) 고려의 조세제도

세제(稅制)는 당의 조(租)·용(庸)·조(調)제도를 본따 공물(貢物) 요역(徭役 : 부역賦役)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이 밖에도 잡세도 있었다.

##### (1) 조세(租稅)

토지 경작자(개호 : 個戶)로부터 거둬들이는 현물지대(現物地代)로서 태조 때에는 십일제(什一制)를 써서 수확고의 10분의 1을 받았으나, 성종 때에는 4분의 1로 올려 받고, 그 후 점차 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전(私田)의 경우 수확고의 2분의 1을 받은 때도 있었다.

##### (2) 공물(貢物)

각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매년 세공(歲貢)으로 바치는 것으로 공(貢)에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 두 가지가 있었다. 상공은 쌀·황금·은·포(布)·천 등을 현물로 바치는 것인데 이는 간혹 포(布)로서 절가대납(折價代納)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별공은 특수생산 장소인 각 소(所)에서 특산물 등 철·자기·종이·먹 등을 꼭 바쳐야 하는 것이다.

##### (3) 요역(徭役)

부역(賦役)이라고도 하며 16~60세의 남자(정년자 : 丁年者)가 매년 국가에 노동을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점심도 자기가 부담하는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것이었다.

## 2)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세부고 : 稅賦考)

인조 원년 계해(1623년) 영동지방에서도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게 되었다. 대동법이란 각종 세의 현품물납(現品物納)하는 것으로 포일건(布一件)으로 환산 납부하는 제도이다. 순조 17년 정축(1817년)에 부사 홍백순(洪百淳)이 삼막(蔘瘼)을 깊이 살펴서 영문(營門)에 보고했다. 감사 남하익(南廈翼)이 이를 다시 확인하고 어전(御前)에 진공(進貢)할 것을 진언하였더니 특별히 허가되어 경공(京貢)하라는 명(命)을 받고 관민(官民)이 다같이 축하연을 베푸는 일도 있다.

〈표5-1〉 지목결수액명세표(地目結數額明細表)

(1912년 11월 1일)

군명	결 수					세액(稅額)
	수전(水田)	화전(火田)	택지(宅地)	잡지(雜地)	계	원전(圓錢)
	결부속(結負束)	결부속	결부속		결부속	
춘천	606,979	1,475,870	60,933	-	2,143,782	13,416,232
홍천	539,452	898,932	48,537	-	1,486,921	8,856,980
횡성	530,302	481,510	60,840	-	1,027,652	6,704,832
원주	833,886	1,049,045	52,446	-	1,936,377	12,621,153
평창	174,258	471,575	37,947	153	682,933	2,839,889
영월	245,812	900,336	64,108	-	1,210,256	5,825,817
정선	77,450	397,538	19,147	-	60,153	2,812,603
평해	468,524	261,718	22,804	-	753,100	4,959,839
정진	449,843	341,985	51,736	27	843,591	5,538,340
삼척	321,637	699,272	57,458	283	1,078,651	6,852,650
강릉	1,205,948	455,727	55,009	-	1,716,684	11,324,760
양양	726,206	326,408	42,510	-	1,085,124	6,823,018
간성	615,863	329,412	43,950	-	889,225	5,812,290
고성	260,020	236,296	24,452	-	530,768	3,465,427
통천	613,187	778,970	23,501	40,946	1,456,604	7,385,520
회양	66,248	276,106	11,031	1,022	354,407	2,250,906
금성	76,126	410,546	26,240	294	513,206	3,374,515
평강	84,479	485,708	42,436	-	612,623	3,955,781
이천	128,154	990,531	60,927	8,550	1,188,162	6,366,346
안협	43,026	274,864	18,521	274	336,685	2,220,828
철원	403,590	692,453	60,727	1,734	1,158,504	7,575,640
금화	140,821	323,091	19,822	-	483,734	3,072,661

군명	결 수					세액(稅額)
	수전(水田)	화전(火田)	택지(宅地)	잡지(雜地)	계	원전(圓錢)
	결부속(結負束)	결부속	결부속		결부속	
화천	139,457	148,726	23,918	2,893	414,994	2,690,321
양구	319,660	536,848	36,037	-	893,344	5,593,253
인제	242,071	270,913	74,822	-	587,804	3,393,350
계	9,313,053	13,614,380	1,051,659	56,176	24,035,268	145,737,950

자료 : 춘천헌병수본부편찬, 강원도상황경계, 1912, 333~335쪽.

주 : 답(畓) : 9천3백13결5부3속 전(田) : 1만4천6백14결38부 택지(宅地) : 1천51결65부 9속  
 잡지(잡지) : 65결17부6속 계(計) : 2만4천35결26부8속 세액(稅額) : 14화5천7백27원95전

고려 세제는 중국, 당(唐)나라 때의 조용조(租庸調)와 흡사하고 조선시대 세제는 전부(田賦), 군포(軍布), 공물(貢物)로 하였고 전조(田租)는 세종 21년 기미(1439년) 전분제(田分制)로 3등분하고 연분으로 9등분하여 결(結) 부(負) 속(束)으로 전부(田賦)를 정하였다. 군포(軍布)는 조선조 태조의 사대정책(事大政策)과 부수하여 고려의 징병제도를 폐하고 지원제를 채용함과 동시에 백성들은 군포세(軍布稅)를 납부하여 군자(軍資)로 이용했고 공물(貢物)은 지방토산물로 공납(貢納)토록 하였다.

삼공(蔘貢 : 인삼을 납부하는 것)은 그 공물이 특수품으로 철령(鐵嶺)이남 태백산 이북을 산삼의 명승지라 하여 다액의 삼공을 하라는 명이 내려 주민들은 이 지방산으로 부족하여 부득 타지방에서 매입하여 상납하였다. 그리하여 인삼이 품귀현상을 빚자 가격이 치솟고 또 구하기는 어려워하는 수 없이 주민 각호에 보삼전(補蔘錢)을 부과하여 수납하는 한편 공세외(貢稅外)에 삼전세(蔘錢稅)를 납입하는 악폐(惡弊)도 있었다. 헌종 2년 병신(1836년) 나라에 바치는 삼공(蔘貢)과 춘추납(臘) 등(等) 합계 41양 7전 5푼중을 작전(作錢) 상납(上納)하게 되어 작공전(作貢錢)이 110양이라 주민 부담이 과중하였다.

<표5-2> 지방비

(단위 : 원)

경 상 부				임 시 부			
세입과목	금액	세출과목	금액	세입과목	금액	세출과목	금액
지세부가세	7,286	토목비	1,936	전년도조월금	5,000	권업비	1,580
시장세	7,050	위생급병원비	2,700	국고보조금	66,311	보조비	44,719
도헌세	14,634	구휼비	300	잡수입	50	잡수출	30
잡수입	4,618	권업비	25,684				
		교육학예비	4,256				

고종 3년 병인(1866년) 호포세(戶布稅)문제로 소요가 일어나 상두유생(狀頭儒生 : 선봉자) 4인은 횡성·삼척 감옥으로 이관하고 그 후유증이 심하다가 정묘 정월(1867년)에 부사 조진호(趙縉鎬)가 전근되고 신관 조병화(趙秉和)가 부임하여 호포세 문제를 주민들과 상의, 완전 해결했다.

호포세란 군포세를 개정한 것으로 대원군 집정시에 공포 시행한 것이다. 군포세는 군출정이 없는 가호만 납부하고 귀족, 공리(公吏), 유림(儒林) 등은 면제했고 그것을 다시 호포세로 개정하여 귀족, 유림(儒林), 평민(平民) 등 구분없이 납입하게 하였더니 소요까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고종 20년 계미(1883년)에 대동삼세포(大同三稅布)의 정도를 만들어 작전(作錢) 상납하게 하였다.

고종 25년 무자(1888년) 세공 상납액 만여량을 삼척부매탄소(三陟府煤炭所)에 이송하라는 관문(關文)이 도래하였다가 미기(未幾)에 혁파(革罷) 중지하였다. 학부제록(學府除錄)에 의하면 삼척부(三陟府)에 탄탄광(呑炭鑛)을 세과(細果)붙여 고노(古老)에게 상전(相傳)하고 목초상문(牧樵相聞)으로 세간(世間)에 발포(發布)되었으나 채굴법을 몰라 방치하였다. 그 후 양추축지미인(洋醜詛指米人 : 서양, 미국인)이 이를 잘 알아 정부에 무소(誣訴)하여 특허를 냈고 열읍(列邑)에서 상납되는 호포세를 이송받아 채굴비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조야(朝野)의 반대가 극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 2. 상업

상업은 농산, 축산, 수산, 임산물 등 토산품과 가공상품 매매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지방 생산물인 곡물, 가축, 어류, 산채, 버섯, 약초류 등 원시상품과 가공상품인 의류, 잡화, 식료품, 농기구 등 일상용품의 매매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지방의 상업관계업체로서는 대규모 업체는 없고 중급업체로 종합상점(슈퍼마켓) 4~5개소 정도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6년 9월 1일에는 양양읍 남문4리에 현대식 시장 건물을 준공하고 전 군민과 상인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그 규모를 보면 3층 콘크리트 양열건물로 총 길이는 100m이고

내부 점포수는 100개 점포이다. 2층과 3층은 상품의 적치장과 점주(店主) 가족들이 거처하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장건물 건축재원은 점주들이 부담한 전액과 국가보조금 등 총 12억원이 소요되었다.

## 1) 한말의 시장제도와 현재

시장이란 원래 물물교환 또는 일용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매매가 성립되는 장소이다. 매일 시장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일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곧 그 지방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들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지방뿐만 아니라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양양시장은 영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그 규모가 컸다. 또한 양양시장을 중심으로 군관내 북방에 3개소, 남방에 2개소, 서방에 1개소가 있었다. 그중 서림(西林)시장과 기사문(其士門)시장은 1945년에 폐지되었고 나머지 5개 시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정된 일자에 개설되는 시장은 다음과 같다.

- 양양시장(양양읍 남문4리) : 매월 4, 9, 14, 19, 24, 29일(현재는 상설시장을 겸함)
- 물치시장(경현면 물치리) : 매월 3, 8, 13, 18, 23, 28일
- 인구시장(현남면 인구리) : 매월 5, 10, 15, 20, 25, 30일
- 속초시장(속초시 중앙동) : 매월 2, 7, 12, 17, 22, 27일(현재는 상설시장)
- 교암시장(죽왕면 교암리) : 매월 1, 6, 11, 16, 21, 26일(현재 고성군)
- 서림시장 : 1945년 폐지
- 기사문시장 : 1945년 폐지

## 2) 양양시장의 변천

구한말부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양양에도 시장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양양시장은 점포수가 100여 개 안팎으로, 한때에는 127개의 점포수가 성업

하였으며 영동지방에서 유일하게 그 규모가 컸다. 그러나 1945~1980년까지 명맥(命脈)을 이어온 시장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현재는 양양시장과 우시장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양양시장은 1919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각 면과 마을에서 장꾼으로 가장하여 물결치듯 모여들어 만세운동을 벌인 곳으로 그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 후 만세운동의 기점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양양장날을 4일과 9일로 정하고 현산문화제도 4월 4일에 개최한 때도 있어 양양문화의 현장이기도 하다.

또한 정기적인 시장으로 우시장이 있는데 구제역 파동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영동지역에서는 거래규모가 크다. 양양장날이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등에 맞추어 개장되며 강릉, 태백, 인제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도 이곳을 통해 매매됨으로써 영동지방의 가축(소)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하겠다. 하절기 개장시간은 오전 5시이며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영동권에서 집결한 한우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1960~1970년대까지 정기적으로 열리던 양양시장, 인구시장, 물치시장은 난장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79년에 처음으로 슈퍼마켓이 등장하면서 크고 작은 점포들이 생겨났다. 1979년 2개에 불과하던 슈퍼마켓은 1986년에 75개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양양군의 유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하였다. 또한 강릉시, 속초시 등 인근 대도시에서 대형할인마트가 생겨남에 따라 이들 중소형 도매업을 비롯한 재래시장에서도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 3) 활성화 방안

양양전통시장은 영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5일장이 개장되는 시장으로 지역특산물의 매매 등 상업적 공간이면서 인근시군 및 전국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커지고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의 기호와 재래시장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골풍경을 재현하고 상설무대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상인, 관광객,

주민 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였다. 특히 방문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극심한 재래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남문4리 일원에 33억원을 투자하여 2,229㎡ 규모로 자동차 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통대장간을 유치하고 농기구, 생활용품 등을 전통적 방법으로 제조·전시·판매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소도읍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전통이 함께하는 관광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3. 금융업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이 남아도는 사람이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 자금 거래를 하는 일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며 직접 거래에는 커다란 위험이 수반된다. 즉,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서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고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자금 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정보 수집을 위한 탐색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거래 후에도 신뢰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여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의 발달은 기업의 자금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금융시장이고,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은 소비, 저축,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해 줌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금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 활동 자체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은 정보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보 서비스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금융 부문은 공공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효율적인 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발달이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양양군의 금융기관은 2005년까지 시중은행으로서 조흥은행이 운영되었고, 2006년 조흥은행이 신한은행과 합병하면서 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수은행으로서는 농협중앙회가 2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의 예금, 대출 및 어음 현황은 다음 <표5-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금융업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는 예금과 대출규모이다. 양양군의 경우 2006년에 1,126억원으로 예금이 급증하였으며, 대출 규모도 1,300억원으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예금과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기업들에 의한 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표5-3>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단위 : 억원)

연별	예금 총계	저 축 성 예 금							요구불 예금	대출
		계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저축 예금	상호 부금	기업 자유예금	기타		
2002	50.6	55.4	27.7	5.4	19.7	1.3	-	1.3	28.2	139.9
2003	84.9	52.7	27.7	4.3	19.5	1.6	-	2.5	30.4	134.5
2004	82.9	75.6	24.8	4.7	18.8	1.1	-	4.3	23.1	120.6
2005	80.8	58.7	46.7	4.7	18.1	0.8	-	3.0	22.1	123.3
2006	1,126.0	890.0	297.0	37.0	181.0	4.0	335.0	35.0	236.0	1,300.0
2007	976.0	674.0	305.0	29.0	165.0	2.0	140.0	31.0	302.0	1,255.0
2008	1,152.0	879.0	464.0	30.0	162.0	2.0	189.0	19.0	273.0	1,239.0

주 : 1) 예금 취급점포 기준 2) 외화예금 및 동업자예금 제외 3) 자유저축예금 포함('97.6월부터)

## 1) 금융기관 현황

### (1) 신한은행 양양지점

신한은행은 1897년 2월 한성은행(구 조흥은행)으로 창립하였다가, 1982년 7월 신한은행으로 창립하였다. 1999년 4월에는 충북은행과 합병한 후 동년 9월에는 강원은행과 합병하여 조흥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01년 9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4월 3일 신한은행 양양지점으로 점명을 변경하였다. 2008년 1월 금융감독원 선정,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기관 마크를 취득하고 동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하였다. 또한 은행권 최초, 신한 PB 원격거래서비스를 시행, 동년 2월 국내최초 [글로벌 FNA외화예금] 출시, 프리미엄브랜드지수, PB부문 1위 브랜드 수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은행부문 1위로 5년 연속 선정되었다. 신한은행 양양지점은 2009년 7월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업무, 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농업협동조합은 자조·자립·협동을 그 이념으로 하는 농민조직단체로서,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같은 설립목적에 따라 농민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생산 및 소득사업과 지역농업의 개발사업,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개선사업, 농업기계화 실현을 위한 농기계 보급사업, 농업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농업생산을 위해 비료와 농약 농기계 일반농자재 등의 농업생산자재를 공급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과 같이 금융업무 전반을 취급하며, 농촌발전 투자지원자금을 조성하여 방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의 설립과 변천과정은 1961년 8월 15일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하여 양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다. 설립 당시 본소와 속초지소를 두었으며, 관내에 114개의 이동조합을 조직하였다. 1980년 12월 31일 농협법 개정에 따라 1981년 1월 1일 양양군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지사 사무소화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속초지소는 1984년 8월 14일 속초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2년 1월 1일에는 속초시지부로 승격되어 업무관할이 양양군지부에서 분리되었다. 관내 4개 지역농협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일 농·축협의 합병으로 관내 1개 지역축산농협을 두었다. 또한 1993년 4월 1일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고

2005년 9월 15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와 같은 선진금융 점포로 사무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조직은 1974년 5월 1일 설악동 간이예금취급소를 1974년 9월 20일 청학동 간이예금취급소를 각각 개점하였으나 사업실적 저조로 청학동 간이예금취급소는 1976년 6월 23일 폐쇄되었다. 설악동 간이예금취급소는 1980년 2월 29일에 설악농협으로 이관되었으며 양양군청출장소는 1997년 8월 18일 군청 내에 개점하였다. 지역농협으로는 1969년 10월 1일 양양농협을 시작으로 손양, 서광, 하조대, 현북, 강현농협이 각각 설립되었다. 1981년 9월 25일 경영 및 지리적 여건이 취약한 손양농협이 양양농협에 흡수 합병되었고, 1999년 4월 15일에는 하조대농협과 현북농협이 신설·합병되었다.

### (3) 양양농업협동조합

양양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9월 15일 양양리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972년 12월 13일에는 종합시설(사무실, 연쇄점)신축하고 1974년 1월 15일 양주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9년 9월 30일 자립조합으로 승격되면서 1981년 9월 30일 손양단위농업협동조합을 흡수하여 합병하였다. 1982년 2월 7일 양양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3년 12월 10일 농기구수리센터를 준공하고 1995년 12월 21일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다. 1998년 8월 30일 하나로마트를 증개축하고 2000년 6월 8일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준공을 하였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수는 1,760명에 총자산은 848억원이고, 본점 1개소에 하나로마트 1개소, 농개계수리센터 1개소, 주유소 1개소, 영농자재백화점 1개소, 농산물건조 저장처리시설(DSC)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4) 서광농업협동조합

서광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10월 1일 서면농업협동조합으로 출범(出帆)하여 1971년 7월 1일 건물 50평을 신축하였다. 1983년 5월 27일에는 서광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

칭변경하고 1989년 12월 31일 신청사 준공하였다. 1990년 2월 27일부터는 조합장 직 선제를 도입하고 1990년 6월 7일에는 오색예금취급소, 1992년 6월 23일에는 서울직판장, 1994년 11월 28일에는 인진쑈 가공공장을 준공하였다.

1998년 12월 7일에는 농기계서비스센터 준공하고 1999년 8월 7일에는 제2가공공장을 준공하였다. 2000년 9월 15일에는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 2002년 4월 20일에는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조합원은 1,021명으로 대의원수 57명, 준조합원 1,691명에 임원 9명이다. 주요업무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총 수신은 353억원이며 총 여신은 296억원으로 나타났다.

#### (5) 하조대농업협동조합

하조대농업협동조합은 1965년 3월 31일 현남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출범하여 1989년 4월 1일 현남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고 1998년 2월 20일에 현남농협 신청사를 준공하였다. 효율적인 농협운영 일환책으로 1998년 12월 21일 현북농협과 합병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여 다음해 4월에 합병등기를 하고 현남에는 본점, 현북은 현북지점으로 개원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시설은 경제사업장 1개소, 주유소 1개소, 하나로마트 2개소, 농기계서비스센터 2개소의 시설이 있다. 주요사업실적으로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수신은 374억원이며 총 자산은 532억원이다. 조합원수는 1,300명이며 임원 8명이다.

#### (6) 강현농업협동조합

강현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10월 1일 강현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출범하여 1970년 10월 1일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고 1974년 1월 1일부터 단기농사, 비료, 농약, 판매업무를 시작하였다. 1994년 4월 18일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97년 7월 1일 전진리에 낙산지소를 개소하였다. 2005년 12월 6일에는 2,000톤 규모의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을 건립하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도정공장 준공 등으로 현재의 종합

농협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주요사업 실적으로 예수금은 420억원이며 대출금은 360억원이다. 자기자본은 4,141백만원이며 출자금은 1,482백만원이다. 조합원 평균출자금은 1,331천원으로 연체비율이 5.18%에 불과하여 불건전여신비율 0.04%를 기록하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농협 총화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상호금융 여신 클린뱅크를 수상하여 5년 연속 깨끗하고 건전한 농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부조직은 조합원 1,113명 대의원 59명 이사 7명, 감사 2명, 조합장 1명, 전무 1명, 상무 3명 등이다.

#### (7)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및 축산진흥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조합으로 운영해왔다. 축협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되면서 조직을 구성하였다.

1981년 2월 1일 설립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다음해 3월에는 양양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2년 10월 1일에는 강릉축협으로부터 한우 순수계통번식사업을 인수하였다. 1988년 3월 24일에 양양군으로부터 가축시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년 4월 22일에 상호금융 업무개시를 하였다. 1995년 5월 4일에는 현 청사를 신축하고 축산물 전문판매장 개장 및 생활물자 판매업무를 개시하였다.

한편, 가축시장은 양양읍 성내리에서 월리 산 32번지로 이전하였다. 시설규모로는 2,500㎡정도의 전천후 계류장 1동(660㎡ : 150두 규모), 축사 1동(330㎡ : 80두 규모) 그 외 관리사 1동, 사무실 1동, 구비장 2동과 주차장(9,051㎡)이 갖추어져 매 장날마다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1월 24일에는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속초, 양양축협과 찬반투표로 합병하였다. 2009년 12월 7일에는 식육처리 판매 HACCP인증(본점 하나로마트, 속초점)을 받았다. 주요업무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총 자산은 973억원이며 총 수신 715억원, 총여신 580억원으로 나타났다.

### (8)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민주적 협동운동을 통한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수산업 생산력증진, 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어촌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경제적 기능으로는 여신·수신·상호금융 등 신용사업과 공제사업·공동판매·가격안정·이용가공 등 경제사업을 실시하고 어촌지도 교육홍보 조사연구 경영지도 등 지도사업과 어촌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다.

본 조합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 2월 1일 현남면 어업조합으로 발족하여 1934년 8월에 현북면어업조합과 합병하면서 현남면인구어업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4월 1일 속초어업조합에 합병되었으나 1946년 11월에 남북분단으로 인해 현남인구어업조합으로 독립되었다. 1961년 7월 명주군 주문진어업조합으로 합병되었다가 1965년 12월 양양군 어업조합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상호금융업무개점은 1975년 7월부터이며 동년 12월 31일에는 현재의 명칭인 양양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고 13개 어촌에 조합원수는 499명이다. 낙산과 남애지점을 개설하고 상호금융 업무를 개점하였다. 그리고 낙산에는 수산물 백화점을 물치에는 사업소를 각각 개설하였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 자산은 394억원이며 총 수신 253억원, 총여신 24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 (9)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1975년 3월에 남문3리 돼지새마을금고로 설립한 것이 효시이다. 1985년 6월에 남문3리 돼지새마을금고와 남문4리 황소새마을금고를 통합하여 양양새마을금고로 임의 발족하였다. 1986년 9월에 양양새마을금고로 설립인가를 받아 1987년 3월에 1억원, 그로부터 6년 후인 1993년 12월 31일에는 50억원이 조성되었다. 1994년 4월에는 자체회관을 준공하였으며 1996년 12월말에는 자산 102억원 조성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서광새마을금고와 합병하고 2001년에 금융결제원 가입을 하는 등 자산이 증대되어 2002년 12월말에는 231억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총 자산은 511억원이 조성되었고 회원은 5,554명이다.

### (10) 양양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으로, 임업의 생산력 증진과 공동이익의 증대를 기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의 필요한 임업 기술지도와 정부의 산림시책사업의 대행, 임업경영을 위한 장기저리 산림개방 자금의 융자 등으로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용·판매·구매·이용사업을 펼치고 있다.

양양산림조합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1호로 산림조합 및 각 리 145계를 공법 인화 하였고, 1984년 4월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3년 12월에는 산림조합명칭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1996년 1월부터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였다. 조합명칭은 임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11) 낙산신용협동조합

낙산신용협동조합은 공공유대를 바탕으로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합의 본점은 강현면 전진리 50번지에 소재하며 지점은 양양읍 남문리 99-16에 두고 있다. 1992년 9월에 창립되어, 당시 총 자산은 1억 1천만원에 조합원은 124명이었다. 1993년 2월 재무부장관 인가 취득(제04-098호)이 되어 동년 3월에 법인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당시의 총 자산액은 12억원으로 조합원수는 461명이었다.

수상실적으로는 중앙회장 표창(2007. 2.12.), 금융감독원장 표창(2008. 2.28.), 경영 우수조합 표창(2009. 2.17.) 등 3회를 수상하였으며 2009년 말 기준 총 자산은 263억원이며 조합원수는 3,472명이다.

## 4. 제조업

양양군의 제조업은 2008년 말 기준 31개 사업체에 722명이 종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식료품 제조업이 18개 업체 475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6개 업체 126명, 비금속 광물업의 6개 업체 76명 등 원료 중심형의 제조업이 주업종이다. 업종별 제조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4〉 제조업 중 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개소/명)

구 분	합 계	식료품 제조업	코르크스 및 연한 제조	의료용물질· 의약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조업
2009.12월 기준	31/772	18/475	3/60	16/126	6/76	3/15	15/20

자료 : 『통계연보』, 양양군, 2009, 145~146쪽.

### 1) 양양포월농공단지

양양읍 포월리 261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월농공단지는 국·도비 및 군비 등 총사업비 68억 3,400만원을 들여 1992년 12월 26일 공사에 착공하여 1994년 5월 9일까지 1년여 기간을 거쳐 완공하였다. 단지 총 면적은 11만 6,727㎡이며 산업시설구역 8만 5,000㎡와 공공시설구역 3만 1,727㎡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음식료 13개 업체, 석유화학 3개 업체를 비롯, 섬유·의복, 비금속 2개 업체, 조립금속 2개 업체, 전기·전자 2개 업종과 기타 6개 업종 등 모두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00%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단지 내에는 남자 178명, 여자 201명, 외국인 노동자 21명 등 모두 401여 명이 종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양양 포월농공단지 전경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배전반, 화장품, 농수산물가공제품, 송이가공식품 등이 꼽힌

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520억원이었으며, 같은 해 수출액은 380만 달러에 달한다. 1일 평균 900m<sup>3</sup>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수질 오염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으며 벤처타운과 장애인보호작업장도 1곳씩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입주업체에게는 폐수처리원인자부담금의 50%를 월 1,50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지원된다. 또 지방계약법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납품계약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1) 주요 입주업체

#### 가. 일송영농조합법인

일송영농조합법인(대표 : 김춘호)은 지난 2001년 4월 포월리에서 설립됐으며 2007년 6월 농공단지로 입주한 송이 및 기타 버섯류 등의 가공, 생산, 판매업체이다. 장기보관식품인 ‘송이장조림’을 개발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외에도 송이명품 찬세트, 송이찬세트, 송이차세트, 송이다과세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6년 일본시장개척단과의 바이어초청상담회,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일본에 양양송이제품을 상당량 수출,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해 무역의 날에는 우수중소기업 표창을 받았다. 2007년 지역특화기술 혁신선도기업지원사업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푸드 재팬(Food Japan) 2009에 참가하는 등 황금송이 알리기에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2009년 11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 나. 송이산영조합법인

송이산영조합법인(대표 : 박영학)은 자연송이 유통 및 수출과 자연송이 가공 식품 제조 회사다. 특히 자연송이 장기보관방법 및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년간 전문기관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터득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을

일본 등지로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신지식인 및 자연송이 전문벤처기업으로서의 면모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국내산 자연송이세트, 북한산 자연송이세트, 산골자연송이세트, 송이수 세트, 자연송이과자세트, 산삼배양근 꿀세트 등과 함께 황태·오징어 세트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유명백화점과 호텔, 골프장, 공항, 홈쇼핑 센터 등을 주요 납품처로 하고 있으며 2009년 6억 6,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 다. 명진수산

명진수산(대표 : 김영수)은 동해 연근해에서 어획된 홍게살을 가공·생산해 주로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다.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명진수산은 2000년 8월 회사를 설립, 본격적으로 냉동 홍게살을 생산해 오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제정한 제9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진수산은 그간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과 14001 인증에 이어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예방을 위한 해썬(HACCP) 인증도 받는 등 현재 일류 수산물 가공 제품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32억 5,0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으며, 187만 5,000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 라. (주)스피어테크

기초 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스피어테크(대표 : 이의형)는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ODM(원천개발제조 방식) 제조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완제품과 원료를 생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호주, 대만, 일본 등지를 판매시장으로 하는 등 국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유망 중소기업이다. 1997년 (주)오네스라는 향토기업을 설립하여 그해 LG C&C 대리점 매출 우수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

2000년에는 (주)코오롱 정보통신과 AGENT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2001년 (주)스피어테크로 법인전환했으며, 2002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 2005년에는 강원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중

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실용과제 대상업체로도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능력과 의지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도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 제정한 제12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64억 6,0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으며, 101만 7,000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 마. 한신인더스트리(주)

한신인더스트리(주)(대표 : 이권발)는 PE 파이프, PE KP형 수도관, PE 이중벽관, PE 삼중벽층벽관, PE유공관, PE관련 이음관 등을 생산한다. 2000년 10월 법인을 설립해 그해 11월 생산을 개시했고, 2001년 1월 수도용 폴리에틸렌관과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등에서 Q마크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 표시인증을 취득했으며, ISO 9001 인증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KPS(PL)인증을 얻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06년에는 도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31억 1,2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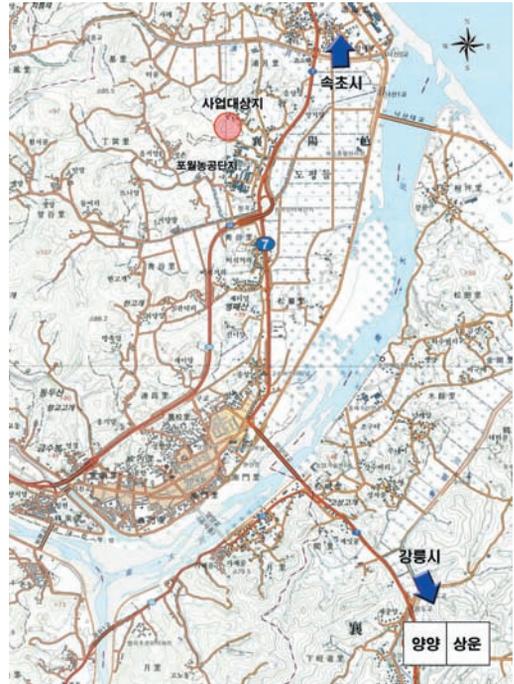
## 2)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

양양읍 포월리 산 40번지 일원에 제2그린 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면적은 10만 1,210㎡로 국·도비 및 군비 등 모두 80억 9,800만원이 투입된다. 2012년까지 본 공단이 조성되며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쳤으며, 도(道)로부터는 타당성 심사를 받은 상태이다.



제2그린농공단지 조감도

2010년도에는 올해 1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 토지 43필지(8만 645m<sup>2</sup>)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본 농공단지에는 송이가공, 청정식품 개발, 친환경 벤처기업 등 환경 친화적인 그린(Green)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발굴조사, 농공단지조성 승인 및 지정,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들어 갈 계획이다.



제2그린농공단지 위치도

### 3) 해양심층수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래 성장 분야인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기활성화 및 토지·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양심층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남애1리 일원에 154,690m<sup>2</sup>규모로 사업비 127억원(국비 33, 국비용자 9, 도비 5, 군비 80)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 해양심층수 관련 청정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4월~7월까지 입지 타당성 등 관련 사항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고 2011년 6월~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주)위터비스의 해양심층수 기업과 클러스터화하여 국내 최고의 해양심층수 전용기업들이 들어서게 된다.

#### 4) (주)워터비스

(주)워터비스(대표이사 : 추용식)는 한국해양연구원 창업기업으로 해양생명, 식음료, 의약분야 연구현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R&D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해양심층수 정제·가공 기술’ 및 각종 응용 제품의 개발 기술을 확보하였다. 현재 현남면 원포리 청정해역에서 고품질의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미네랄워터, 스킨케어, 미네랄 솔트 등 각종 제품을 국내최초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양양군에서 투자 유치하여 창업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행정지원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의 기업이다.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현남면 원포리 해변에서 18km 떨어진 해저 1,032m<sup>2</sup>에서 취수하기 위한 해수관로 및 생산플랜트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부설연구소에서는 국내 최고의 해양 전문가들이 주야로 새로운 기술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5. 수출입 현황

양양군의 수출입은 2007년 말을 기점으로 하여 수출입 총액은 12,058천 달러로 수출이 1,050천 달러, 수입이 2,008천 달러로 수출이 수입에 비하여 8,042천 달러를 초과하여 바람직한 무역교역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송이 등 농림 수산 임산물과 관련된 농식품 및 산동물의 수출이 7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 수입통관실적, 수출 및 수입실적, 농수산물 수출입 실적은 <표5-5>, <표5-6>, <표5-7>, <표5-8>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표5-5> 수출입 통관 실적

(단위 : 천불)

연별	총액(A+B)	수출(A)	수입(B)	수출입초과(A-B)
2006	13,442	10,407	3,035	7,372
2007	12,058	10,050	2,008	8,042
2008	14,790	12,796	1,994	10,802

〈표5-6〉 수출실적

(단위 : 천불)

연별	합계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연료 제외)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 성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재료별 제조 제품	기계 및 운수 장비	기타 제조 제품	달리분류 되지 않는 상품 및 취급물
2006	10,407	7,511	-	298	-	-	2,444	3	24	127	-
2007	10,050	7,177	-	302	-	-	2,528	10	-	30	3
2008	12,796	8,928	13	579	-	-	3,059	9	179	29	-

〈표5-7〉 수입실적

(단위 : 천불)

연별	합계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연료 제외)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 성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재료별 제조 제품	기계 및 운수 장비	기타 제조 제품	달리분류 되지 않는 상품 및 취급물
2006	3,035	2,107	-	23	62	-	386	179	163	115	-
2007	2,008	1,154	-	5	91	-	326	307	72	53	-
2008	1,994	686	-	11	124	-	442	493	70	168	-

〈표5-8〉 농림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연별	수 출					수 입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2002	5,586	125	-	10	4,201	-	-	-	-	-
2003	5,640	135	-	50	4,105	-	-	-	-	-
2004	11,807	344	-	-	10,071	-	-	-	-	-
2005	1,095	-	-	-	1,095	-	-	-	-	-
2006	7,609	100	23	-	7,476	2,178	169	1	1	2,007
2007	7,232	141	-	-	7,091	1,207	57	1	3	1,146
2008	9,259	71	30	-	9,158	777	84	2	11	680

집필 : 김영식

---

## 참고문헌

- 양양문화원, 1976, 『향토지』  
양양군, 1990, 『양주지』 467~498쪽  
양양군, (각 년도). 『양양군통계연보』  
강현농업협동조합, 2010, (내부자료)  
낙산신협 및 양양지점, 2010, (내부자료)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2010, (내부자료)  
신한양양지점, 2010, (내부자료)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 2010, (내부자료)  
양양군경제도시과 농공단지현황, 2010, (내부자료)  
양양새마을금고, 2010, (내부자료)  
하조대농업협동조합, 2010, (내부자료)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 2010. 4. 9.

<http://www.ganghyunnonghyup.com>.

<http://www.seokwangnh.com>

<http://www.yyhanu.co.kr>

<http://www.yyangnh.com>.

<http://www.yangyang.go.kr>

---

